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천연재료를 활용한 미술작품 제작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rt Works using Natural Materials

- Based on my works -

울산대학교 대학원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과
김성동

천연재료를 활용한 미술작품 제작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세 원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年 11月

울산대학교 대학원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과
김 성 동

김성동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이경 (인) 

심사위원 김서진 (인) 

심사위원 김은혜 (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2年 2月

감사의 글

“学而時習之，不亦說乎”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긴 터널을 하나둘 지나 지금 또 하나의 터널을 지나려 한다. 막막하기만 했던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짧게만 지나간 시간이었다. 항상 배움은 긴장되지만 설렘과 즐거움으로 몸 구석구석에 엔도르핀이 돌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孔子께서 論語의 學而편에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学而時習之，不亦說乎)’라 하셨나 보다. 학창시절에는 깊이 느끼지 못했던 걸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젊은 시절 그렇게 못함을 후회하게도 한다. 배움에는 나이가 따로 없다고 하지만 배울 수 있는 환경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긴 세월 나의 투병 생활로 가정이 어려워 정작 미술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던 아내는 붓 한번 편히 잡을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한 일들을 쉬지 않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내가 대신하고 있으니 미안하기 그지없다. 그 힘든 시간을 곳곳이 견디면서 아이들 둘을 잘 길러준 아내에게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든든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딸과 공학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아직도 학업에 몰두하고 있는 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내며, 오랫동안 아픈 자식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셨던 어머니, 평생 교직에 계시다 귀한 손자의 서울대학교 입학도 못 보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와 동생의 모습을 지켜보며 늘 기도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형제자매에게 감사를 드린다.

만학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울산대학교 미술학부 섬유디자인전공 김세원 교수님, 김언배 교수님, 김이평 교수님의 지도와 나의 삶과 작품의 세계에서 인생을 배울 수 있도록 격려와 부족한 저의 작품 평을 아낌없이 해주신 울산 철새홍보관 김성수 이학박사님, 전 대구미술관 관장이신 최승훈 조형예술학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감사의 마음을 좋은 작품과 베품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

2021년 10월 김성동

목 차

표 차례	i
그림 차례	i
사진 차례	iii
국문 초록	iv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천연재료의 일반적 고찰	3
1. 황토	3
2. 숯	10
3. 송진	12
4. 한지	13
III. 제작과정	17
1. 제작방법	18
1-1. 황토가루 만들기	18
1-2. 혼합재료	18
1-3. 혼합과정	20
1-4. 작품제작 과정	22
2. 표현기법	24

IV. 작품의 분석과 해석	26
1. 의미 배경	26
2. 작품의 의미해석	30
3. 작품의 개요 및 학위청구 작품 목록	53
3-1. 작품 개요	53
3-2. 학위 청구전 작품 목록	55
4. 작품 분석	56
4-1. 표본작품-1 ‘scratching story-바라보다’	56
4-1-1. 구조분석	57
4-1-2. 의미분석	65
4-1-3.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66
4-1-4. 색채분석	67
4-2. 표본작품-2 ‘465miles-2005p12’	68
4-2-1. 구조분석	68
4-2-2. 의미분석	69
4-2-3.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70
4-2-4. 기호사각형	71
4-2-4. 색채분석	74
4-3. 표본작품-3 ‘465miles-1005p12’	75
4-3-1. 구조분석	75
4-3-2. 의미분석	76
4-3-3.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77
4-3-4. 색채분석	78
 V. 결론	 79
 참고문헌	 81
 ABSTRACT	 83

표 차례

<표 1> 황토의 화학적 성분표	6
<표 2> 황토의 미생물학적 주요 성분 4가지	7
<표 3> 전통 한지, 중국의 선지, 일본의 화지 비교	16
<표 4> 학위 청구전 작품 목록표	55
<표 5> 표본작품-1의 B1(판넬) 재료와 제작법	58
<표 6> 표본작품-1의 B2 재료와 제작법	59
<표 7> 표본작품-1의 B3 재료와 제작법	60
<표 8> 표본작품-1의 B4 재료와 제작법	61
<표 9> 표본작품-1의 B5 재료와 제작법	62
<표 10> 표본작품-1의 B6 재료와 제작법	63
<표 11> 표본작품-1의 구조분석표	64
<표 12> 표본작품-2의 구조별 제작표	68
<표 13> 표본작품-3의 구조별 제작표	75

그림 차례

<그림 1> 세계의 4대 문명지	5
<그림 2> 황토의 결정구조	8
<그림 3> 황토의 원적외선 방출 그래프	8
<그림 4> 황토의 효능	9
<그림 5> 알타미라 동굴벽화(cueva de Altamira)	10
<그림 6> 무용총 무용도	10
<그림 7> 숯의 확대 사진	11
<그림 8> 흑탄과 백탄	11
<그림 9> 송진 사진과 채취 흔적	12
<그림 10> 송진 덩어리	13
<그림 11> 황토가루 만들기	18
<그림 12> 황토의 혼합재료	19
<그림 13> 황토의 혼합과정	20
<그림 14> 황토의 명도 조절	20
<그림 15> 시멘트를 주재료로 한 숯과 먹의 혼합과정	21
<그림 16> 작품제작 과정	23
<그림 17> 표현기법	25

<그림 18> 시간 찾기-국전 특선작, 2018	27
<그림 19> scratching story-바라보다, 45×53, Mixed media on panel, 2020	30
<그림 20> 소망 15×15, Mixed media on panel, 2020	31
<그림 21> 기원하다. 42×83, mixed media, 2020	33
<그림 22> 반구대 암각화	34
<그림 23> 형상 너머의 기억, 162×130, 2019	34
<그림 24> 465miles-200512, 97×116, 2021	35
<그림 25> 465miles-133012, 91×73, 2021	38
<그림 26> 465miles-180312, 91×65, 2021	39
<그림 27> 465miles-111212, 65×53.2, 2021	39
<그림 28> 465miles-130112, 65×53.2, 2021	40
<그림 29> 465miles-112112, 65×53.2, 2021	40
<그림 30> 465miles-220112, 45.5×53, 2021	40
<그림 31> 465miles-0304p12, 80.3×80.3, 2021	41
<그림 32> 465miles-0705p12, 80.3×80.3, 2021	41
<그림 33> 465miles-0632p12, 63×63, 2021	42
<그림 34> 녹슬고 있음, 2001	42
<그림 35> 부도 100F, 2001	42
<그림 36> 465miles-187112, 69×36.2, 2021	43
<그림 37> 465miles-150112, 69×36.2, 2021	44
<그림 38> 465miles-2000112, 130.3×162.2, 2021	46
<그림 39> 작업 광경(종이테이프 작업)	46
<그림 40> 작업 광경(접착제 도포)	46
<그림 41> 465miles-1010112, 53×45, 2021	47
<그림 42> 465miles-1020112, 53×45, 2021	47
<그림 43> 465miles-1002b12, 53×45, 2021	48
<그림 44> 465miles-100212, 53×45, 2021	48
<그림 45> 465miles-2005p12, 91×116.5, 2021	49
<그림 46> 465miles-110512, 116.5×91, 2021	50
<그림 47> 465miles-200112, 45.5×53, 2021	51
<그림 48> 465miles-11412, 33.3×24.3, 2021	52
<그림 49> 경상일보 기사 내용	53
<그림 50> 전시 유튜브 광경	53

<그림 51> 표본작품-1 ‘scratching story-바라보다’	56
<그림 52> 표본작품-1의 외형적 작품 구조	57
<그림 53> 표본작품-1의 B1(판넬) 구조도	58
<그림 54> 표본작품-1의 B2 구조도	59
<그림 55> 표본작품-1의 B3 구조도	60
<그림 56> 표본작품-1의 B4 구조도	61
<그림 57> 표본작품-1의 B5 구조도	62
<그림 58> 표본작품-1의 B6 구조도	63
<그림 59> 표본작품-1 구분도	64
<그림 60> 표본작품-1 ‘scratching story-바라보다’의 수형도	66
<그림 61> 표본작품-1. 색채분석표	67
<그림 62> 표본작품-2 ‘465miles-2005p12’ 외형적 작품 구조	68
<그림 63> 작품 ‘465miles-2005p12’ 수형도	70
<그림 64> 465miles-2005p12	72
<그림 65> 표본작품-2의 색채분석도	74
<그림 66> 표본작품-2 ‘465miles-110512’ 외형적 작품 구조	75
<그림 67> 표본작품-3 ‘465miles-110512’	76
<그림 68> 표본작품-3 ‘465miles-110512’ 수형도	77
<그림 69> 표본작품-3의 색채분석도	78

사진 차례

<사진 1> 5살 무렵 연구자	26
<사진 2> 가족사진	26
<사진 3> 7살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26
<사진 4> 군 휴가 중	27
<사진 5> 2002년 전시장에서	27

국문 초록

현재 지구 환경은 하루가 빠르게 악화되어가고 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의 온도는 점점 상승하고 엄청난 환경의 변화로 생태계는 교란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구조는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고, 바이러스는 이종 간의 이동과 변이를 보이며 인류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과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있지만, 대자연의 변화를 막을 방법은 점점 어려워지며 모두의 노력으로 조금씩 늦추거나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또한 일시적일 방법일 뿐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사망원인 1위의 암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그 밖의 모든 인재 또한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인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역순환으로 현대인들이 가지는 건강에 대한 염려는 결국 환경문제라는 화두를 만들어 내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자연과 일상생활의 조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건강한 음식과 함께 좋은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본 연구자 또한 28년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으며, 환경과 건강을 위해 고심하던 과정 중 인류가 오래전부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는 천연재료인 황토를 작품에 이용하게 되었다. 황토는 연구자의 작품의도와 표현에 적합한 재료이며 작품 제작과정을 통하여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려는 의지와 자연으로 회귀하는 인간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

천연재료의 일반적인 고찰을 통하여 재료의 물성을 살펴보고 특히 황토를 이용한 작품 제작과정과 방법 및 다양한 표현기법들을 연구하였다. 연구자의 작품제작 특징 중 하나는 나무 합판에 두꺼운 마티에르기법으로 표현하거나 송진과 같은 다른 재료를 혼합하고 열(火)을 가하거나, 여기에 황토를 덧칠하는 차별화된 표현기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황토를 활용한 작품을 통하여 천연재료가 가지는 의미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공생 그리고 자연 회귀의 필요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작품에 내재 되어있는 조형적 형태와 의미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를 이용하였으며, 효과적인 의미분석을 위해 그레마스(A.J.Greimas)의 기호사각형(Carré sémiotique)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작품제작에 있어 연구자의 성장배경과 환경적 요소들은 구조분석과 의미분석의 중요한 의미소(意味素)들이었다.

그 결과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작품의 다양한 표현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좀 더 객관적으로 작품을 통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천연재료는 병마와 대항하는 연구자의 작품 활동에 심리적, 환경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원동력이었음을 감히 확신한다.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천연재료 중에서 황토를 활용한 시각예술의 표현 방법과 기법들을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차별화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28년간 암과 투병생활을 해 오고 있는 연구자로서 당연히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는 재료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친환경적 재료의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여 창작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들 재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유무를 밝혀내는 것은 어쩌면 본질을 벗어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건강은 연구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며, 작품제작에 있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관계하게 되는 때로는 환자라는 중압감에 창작 의지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환경 재료의 사용은 연구자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어 이제 작품제작을 넘어 지속적 작품 활동은 연구자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작품제작에 있어 연구자 삶의 형성배경과 더불어 작품의 구조 및 의미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전모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다음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연구자의 작품세계의 의미를 규명해 보고 작업의 차별화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작품 제작은 매우 주관적이며 기존의 일반적인 작업방법과 기법을 응용하거나 새로운 재료를 이용한 기법의 개발과 적용은 창의적인 작품의 제작으로 연결된다. 특히 본 연구자와 같이 혈액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화학재료를 대체하는 천연재료의 활용은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품제작에 있어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다양한 방법 등의 적용을 통하여 적절한 작품제작 방법들이 정립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작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적이며 또 다른 창조적인 작품의 제작을 위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연구자의 작품제작 과정을 기록하는 의미도 크겠지만, 후학들에게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어 자세하게 기록해 둘 것이다.

작품제작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형식분석과 의미분석은 필수 과정이며 색채분석도 수행할 것이다. 작품제작의 전 과정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작품의 기술적 복원이나 재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내용은 석사학위 청구전 출품작품과 이와 별도로 최근 2년간 제작한 작품 중에서 25점을 선별하여 의미분석을 하고 그중 3점을 집중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 작품의 주재료인 황토와 숯, 송진 등의 천연재료에 관해서는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고찰해 보고, 제작과정에서 보여지는 기법들은 반복 작업을 통하여 숙지하고 차별화의 근간으로 삼을 것이다.

여기에 육십 평생을 살아온 삶의 궤적을 투영한 작품들의 제작과정 전반에 관하여 연구를 집중할 것이다. 아울러 작품의 형식구조를 분석하고 의미분석을 통하여, 작업 전 과정에서 표출되는 내용을 기술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방법론에서는 문헌연구와 작품제작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작품제작 연구는 청구전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그중에 선별된 작품들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관련 서적과 문헌 등을 살펴볼 것이며 그 범위는 심리학, 예술, 대중문화, 조형기호학, 인문학, 건축학, 건강학 및 관련 논문 정도로 한정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디지털 검색(인터넷 조회)방법도 참고할 것이다.

작품의 구조분석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조형기호학을 활용하고 수형도를 작성, 제시함으로써 구조의미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작품의 의미해석을 위해 연구자의 성장배경과 자기 진술, 주변인들의 증언 및 인터뷰와 같은 취재기록도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내용과 관련한 선행논문, 참고문헌과 자료들을 고찰한다.

둘째, 작품의 제작에 있어 사용재료, 제작과정, 기법소개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셋째, 작품 25점의 의미해석과, 대표작은 시료화하여 집중분석 및 결론을 도출한다.

II. 천연재료의 일반적인 고찰

고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 한 현대에도 자연과 환경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건강에 관련한 자연 친화적인 천연재료가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의식주의 재료로 천연재료가 사용되었다면 현대에는 그 한계가 없을 정도로 깊이와 분야가 세분되어 연구되고 있으며 예술 분야에서도 여러 형태로 활용, 다양한 표현의 기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자도 수많은 천연재료 중에서 먼저 작품제작에 활용 빈도가 높은 황토와 숯, 한지, 송진을 선별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황토

지구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오래된 구성 성분은 흙이고 그중에서도 황토는 흙의 근원이라 하겠다. 지구표면에 있는 60여 종의 흙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광물질로 평가받고 있다. 인간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흙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근원이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근원이다. 그중에서도 황토는 흙 중의 왕이라 할 수 있다¹⁾.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황토의 의미는 암석이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아 변질되어 토양화된 황색 또는 적갈색의 풍화 잔류토(풍화토)로 운반되고 퇴적된 담황색 또는 황회색을 띠는 실트질²⁾ 퇴적물”로 정의된 학술적인 용어인 황토(loess, 풍성 퇴적함)와는 전혀 다르다. 황토에 대한 대강의 성분은 규산 2.47%, 산화알루미늄 10.5%, 산화나트륨 3.66%, 산화 제2철 3.26%, 산화칼륨 2.47%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병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우리나라 황토의 경우 한 손갈 분량에는 약 2억 마리의 미생물이 들어 있고 미네랄이 500배 이상 풍부하여 주거 생활뿐 아니라 식생활, 건강요법 등에서 다양한 효능이 나타나고 있다.

지표의 약 10% 정도를 덮고 있는 황토는 다량의 탄산칼슘(CaCO_3)을 가지고 있어 쉽게 부서지지 않는 끈기를 지니고 있으며 물을 가하면 찰흙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다. 또한 실리카(SiO_2), 알루미늄(Al_2O_3)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효소들로 조성된 황토는 동식물의 성장에 꼭 필요한 원적외선을 다량 방사하므로 일명 황토를 살아 있는 생명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벌집 구조로 수많은 공간이 복층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스펀지 같은 구멍 안에

1) 이광목, 『황토에 대하여』, 이담, 2010, p.19.

2) 가장 작은 입자로 된 쇄질성 퇴적물과 퇴적암으로 직경 0.0062mm보다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John Grotzinger, Thomas H. Jordan, Frank Press, Raymond Siever, 『지구의 이해』, (주) 시그마프레스, 2009, p.142) 참조.

3) 이광목, 앞의 책, p.18.

원적외선이 다량 흡수, 저장되어 있어 열을 받으면 발산하여 다른 물체의 분자 활동을 자극하는 “태양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다.⁴⁾

흙이 가지는 물리적 성질 즉 물성은 화학적 분석과 세부적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점토의 화학적 구성은 $Al_2O_3 \cdot 2SiO_2 \cdot 2H_2O$ 이며 매우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크기는 1/1000mm 크기인 1마이크론 보다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납작한 널빤지꼴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점토가 물과 닿으면 입자의 표면이 매끄럽게 되어 서로 간의 결합력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면 유지가 되고 점토가 가지는 재료로서의 가장 큰 특징인 가소성이라는 성질을 가진다.

가소성이라 함은 흙이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로서 적당한 수분을 포함하고 있을 때 외력에 의해서 변형된 물체가 외력을 제거해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영구 변형을 남기는 성질을 말한다.⁵⁾

1-1. 황토의 생성

흙은 지구상의 지표면에 약 10%를 덮고 있는 무기물 형태의 광물질이며, 색깔별로 황토, 흑토, 홍토, 백토 등으로 구분되고 그 쓰임새도 다양하지만, 이들 중 약성이나 효용 면에서 단연 황토가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살아 있는 생명체라 하여 엄청난 약성을 가진 무병장수의 흙으로 사용됐으며 상당량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 다양한 효소들이 순환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황토의 성분은 실리카(SiO_2), 알루미늄(Al_2O_3), 철분, 마그네슘(Mg), 나트륨(Na), 칼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성분비와 다양한 효소들로 조성된 황토는 동·식물의 성장에 꼭 필요한 원적외선을 다량으로 방사하므로 "황토를 살아 있는 생명체"라 하며, 동쪽의 햇살을 가장 많이 받은 동(東)황토는 황토 중의 황토라 불리고 있다.

전술했듯이 황토는 표면이 넓은 벌집 구조로 수많은 공간이 복층구조를 이루고 있어 스펀지 같은 구멍 안에는 원적외선이 다량 흡수, 저장되어 있어 열을 받으면 발산하여 다른 물체의 분자 활동을 자극한다. 즉 황토는 유수한 세월 동안 태양에너지를 흡수하는 규소성 광물로서 쉽게 말해 '태양에너지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다.

1-2. 황토의 분포

인류문화의 발생과 발전도 황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세계의 <그림 1>과 같이 세계의 4대 문명지는 황토대 위에서 시작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황토 분포지

4) 이광목, 앞의 책, p.24.

5) 조순제, 「흙의 물성표현에 흙의 물성표현에 관한 조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도예학과, 2005, p.4.

는 북위 22도~55도 사이에 있고 이는 신기하게도 인더스, 황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와 일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지역에 포함되며 옛날 유적지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이 황토 지대임을 볼 때 문명의 발상지가 황토 지대임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인돌과 미라는 황토대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고대 족장의 무덤 고인돌을 집단 주거 생활 터임을 알려주는 것이며 동북아 최대의 고인돌이 있는 전북 고창군 고창읍의 성지대가 황토대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볼 때 선사시대의 주거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세계의 4대 문명지

또한, 세계 왕족의 무덤으로서 불가사의라 불리는 수천 년의 미라가 황토대에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문헌을 보면 다양한 기록들이 있는데 기원전 78년 한(漢) 나라 진(進) 황제 때 '어느 날 아침 북서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더니 붉고 노란 구름이 하늘을 덮고 황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하(夏) 나라의 우왕(禹王) 또는 백익(伯益) 이 저술한 중국 최고(最古) 지리서인 "산해경"(山海經)을 비롯해 전한(前漢) 시대 유안(劉安) 이 쓴 "회남자"(淮南子), 후위(後魏·6세기) 가사협이 지은 "제민요술"(齊民要術) 에도 황토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며 명(明) 대의 이시진(李時珍) 이 펴낸 "본초강목"(本草綱目)은 황토의 다양한 효능과 치료법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결국, 황토라는 말은 기원전부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약용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3. 한국의 황토

우리나라의 황토를 살펴보면 황토의 발달 정도는 풍화 환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모암의 종류나 구성 광물 및 화학 조성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체로 서해안의 황토가 발달하여 서해안 지역에는 양질의 황토가 생성되었고 순수 황토는 고령토나 점토보다 찰력이 많은 입자로서 연황색이나 분홍색을 띠고 있는 고생대의 퇴적물로 실리카와 알루미늄, 철 마그네슘, 나트륨, 칼리 등 수많은 무기질이 함유된 미세 입자로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과 많은 약성을 가진 살아 숨 쉬는 흙으로서 원적외선을 다량 방사하는 인체에 매우 유익한 물질이다. <표 1> 황토의 화학적 성분표 참조.

성분	함량(%)	성분	함량(%)
실리카 (SiO ₂)	50~60	산화철 III (Fe ₂ O ₃)	2~4
석회 (CaO)	4~16	산화철 II (FeO)	0.8~1.1
알루미나 (Al ₂ O ₃)	8~12	산화티탄 (TiO ₂)	0.5
산화마그네슘 (MgO)	2~6	산화망간 (MnO)	0.5

<표 1> 황토의 화학적 성분표

황토를 약으로 사용한 기록으로는 세종 때 권채(權採) 등이 쓴 "향약집성방"(鄕藥集 成方·1431) 과 선조 때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1613), 숙종 때 홍만선(洪萬 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 고종 때 이재우의 "왕실양명술"(王室養命術)이 그것이며 고대 역사서인 "삼국사기"에서도 황토와 관련한 '우토'(雨土)에 대한 기록이 여섯 차례 나 보인다. 우리 민족은 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흙을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다양한 흙 문화를 간직하고 있고 옛 선조들은 초가집(토담집)을 짓고 아궁이에 불을 때고 흙으로 만든 구들방에서 생활했다. 온종일 힘든 일을 하여 피로에 지친 몸도, 흐린 날이나 장마에 무겁고 결린 몸도 흙 온돌방에서 땀 흘리고 나면 아침에 거뜨히 일어날 수 있었고 목욕 한번 제대로 못 하고 항생제 없이도 큰 병을 모르고 살았다.

이 같은 조상들의 슬기로운 주거문화에는 「흙」이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재산이다.

1-4. 황토의 성분 및 구조

우리나라의 황토는 중국에서 수십만 년 동안 날아온 황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자 크기는 0.02~0.005mm, 공극률은 50~55%로 점토가 풍부할 경우는 (34~45%) 다공성 분자구조로 되어있다. 수분 함량은 대략 10~15%로 황토에는 수많은 미생물과 약 1,300가지의 효소가 있으며 그 중 약 50종이 활성 황토의 미생물학적 성분 중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4가지로 카탈라아제⁶⁾, 디페놀옥시다아제⁷⁾, 사카라제⁸⁾, 프로테아제⁹⁾의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효소들은 각기 독소 제거, 분해력, 비료 요소,

6) 카탈라아제(katalase) : 인체 내에서의 대사 작용 과정에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소가 발생하면 노화 현상이 오는데, 이때 황토 속에 몸을 넣고 있으면 흙의 강한 흡수력으로 체내 독소인 과산화지질이 중화 또는 희석됨.

7) 디페놀 옥시다아제(Diphenol Oxydase) : 흙이 단독으로 산화력, 분해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흙 속의 미생물과 효소가 이런 산화력, 분해력을 강하게 발산시킨다.

8) 사카라제(Saccharase) : 효소 사카라제 활성을 측정한 결과 황토의 활성이 흑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흑색토: 북한지역에 많이 분포) 인산, 질소, 칼리의 순서로 벼와 보리의 비료 3요소의 필요순위와 맞다. (벼와 보리농사에 흑색토보다 유리하다는 게 입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쪽 지방은 보리 재배가 많고 북쪽 지방은 수수, 좁쌀, 콩 등 잡곡이 많은 이유가 황토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9) 프로테아제(Protease) : 단백질 속의 질소가 무기화(無機化)할 때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가수분해시킨다. 동물성 폐기물(사체)도 가수분해를 거쳐 무기질화하며 흙 속 정화작용 즉 분해시킨다. 암, 종기, 기타 부패한 세포는 황토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분해, 파괴시킨다.

정화작용의 역할을 하고 있다. <표 2> 황토의 미생물학적 주요 성분 4가지 참조.

→ 황토의 미생물학적 주요 성분 4가지	
주요 성분	주요 성분의 기능
Catalase (카탈라아제)	·인체에 독을 제거하는 제독제 역할. ·생물에 대한 독소 과산화수소 제거. ·과산화지질(인체에 노화현상을 진행) 중화 또는 분해 희석 기능이 있어 노화 방지 정화력, 분해력, 활성력 탁월.
Diphenol Oxidase (디페놀 옥시다아제)	·분자 상의 산소를 이용하여 산화 반응의 촉매제. ·인체 내에서 유기, 무기 화합물 산화. ·인체 에너지 공급.
Saccharse (사카라아제)	·각종 질병 세균 제어. ·1분에 약 2,000번씩 세포를 흔들어 세포조직 활성화. ·중금속 제거. ·공기 정화 기능 탁월.
Protease (프로테아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가수분해 역할. ·암, 종기 등 부패한 세포를 분해 제거. ·정화작용과 분해작용 탁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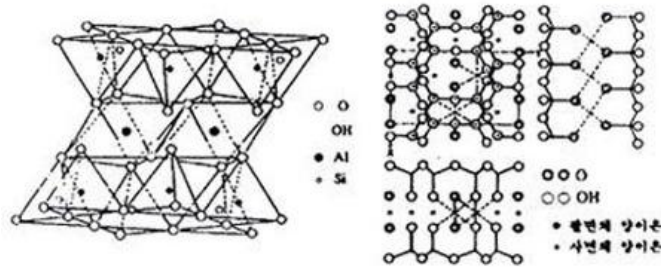
<표 2> 황토의 미생물학적 주요 성분 4가지

특히 그중에서도 카탈라아제는 현재 흙의 효소 가운데 가장 높은 활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효소는 생물에게 독소를 제공하는 과산화수소를 제거하여 생물이 살아갈 적절한 토양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인체 내에서 대사 작용 과정 중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소가 발생하면 노화 현상이 오는데 양질의 황토 속에 몸을 넣고 있으면 흙의 강한 흡수력으로 체내 독소인 과산화지질이 중화, 희석되어 노화를 억제하고 젊음을 유지시켜 주는 효능을 발휘한다.

한편 디페놀옥시다아제는 흙의 산화력, 분해력을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속의 질소가 무기화할 때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가수분해 시키는 효소로서 흙을 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며 이 밖에도 황토 속에는 여러 효소가 있어 스스로 활동을 하며 그 결과 인간에게 이로운 작용을 한다.

오늘날 지표의 약 10%를 덮고 있는 황토는 다량의 탄산칼슘(CaCo3)을 가지고 있고 이 탄산칼슘에 의해 황토는 쉽게 부서지지 않는 끈기를 지니고 있으며 물을 가하면 찰흙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다. 또한 실리카(SiO2), 알루미나(Al2O3), 철분, 마그네슘(Mg), 나트륨(Na), 칼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분비와 다양한 효소들로 구성된 황토는 동·식물의 성장에 꼭 필요한 원적외선을 다량 방사하므로 일명 황토를 살아있는 생명체라 일컬으며 또한, 동쪽의 햇살을 가장 많이 받은 동(東) 황토를 황토 중의 황토로 꼽고 있다. 황토의 색을 좌우하는 것은 주로 산화철 광물이지만 그 함량은 극소량이며 황토의 주 구성 광물은 점토광물과 석영, 장석, 점토광물과 방해석, 중사 광물 등으로 석영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본래 원암에 석영과 장석이 함유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의 토양화 작용을 받으면 석영과 장석이 모두 용해, 유출

되어 알루미늄 광물(점토광물)과 산화철 광물만이 남게 되어 토양의 진화 단계에 따라 그 함량도 변한다.



<그림 2> 황토의 결정구조

황토의 성질은 황토에 함유된 점토광물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며 황토를 구성하는 점토광물의 종류는 황토가 형성된 지질환경과 수문 환경, 지형 및 기후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황토를 구성하는 점토광물로는 카올리나이트, 할로이사이트,

일라이트, 질석, 녹니석 등이 대부분이며 <그림 2>와 같이 표면이 넓은 벌집 구조로 수많은 공간이 복층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 스펀지 같은 구멍 안에는 원적외선이 다량 흡수, 저장되어 있어 열을 받으면 발산하여 다른 물체의 분자 활동을 자극한다. 즉 황토는 오랜 세월 동안 태양에너지를 흡수한 규소성 광물로서 '태양에너지 저장고'라고 할 수 있다.

1-5. 황토의 효능

황토의 가장 근본적인 효능은 황토에서 파장되는 원적외선¹⁰⁾이다. 원적외선은 세포의 생리작용을 활발히 하고 <그림3> 황토의 원적외선 방출 그래프 참조, 열에너지를



<그림 3> 황토의 원적외선 방출 그래프

를 발생시켜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광전 효과가 있어 정화력, 분해력이 있는 황토는 인체의 독을 제거해주어 제독제, 해독제로도 사용되고 있다.<그림 4> 황토의 효능과 같이 황토에서 유익한 원적외선이 복사되어 인체에 흡수됨으로써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짐으로 노화 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방지, 각종 성인병 예방, 화상에 효과는 물론 적조 현상을 막는 효과도 있다. 무엇보다도 물질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효력이 있는 생명선으로 불리는 원적외선과 열에너지를 발생시켜 체내에

유해물질을 방출시키며 사계절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여름철의 습기를 흡수했다가 건조한 계절에 뿜어주고, 흙 미립자 틈 속으로 바람이 통해서 환풍기 구실도 한다.

황토는 우리 민족의 문화·역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데 그 중 황토벽과 황토온돌방의 초가집이 우리 조상의 황토 문화를 대표하며 선조들은 황토를 단순한 흙의 범주를 뛰어넘어 주거와 식생활에까지 이용했고 건강요법으로도 활용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황토를 이용해 흙집을 짓고 살아왔다. 황토에 농작물을 경작하기

10) 원적외선 : 파장이 6~14 μ m의 열선.

도 했으며 그릇을 굽고, 각종 질병에도 활용하였다 최근에는 건축 재료와 양어장 정화제, 적조 제거, 가축 사료 첨가제, 황토방, 황토 침대 등 용도가 더 다양해졌다. 황토를 질병 치료용으로 사용한 기록으로는 조선 시대 "산해경"에는 특히 소나 말의 질병이나 옴과 종기를 낫게 하는데 황토 요법이 사용되었으며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에는 아궁이 속의 흙을 부인의 어지러움이나 토혈·중풍 치료제로 썼다는 기록이 있으며 상사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황토를 은단처럼 만들어 먹었다고 전하며, 복어의 독을 없애는 데도 황토가 이용되었는데 복어를 먹고 죽어가는 사람을 오동잎, 비파잎, 뽕잎, 박하잎 등을 바닥에 깔 뒤 여기에 눕히고 황토로 몸을 덮어 하룻밤을 지내게 하면 치료되었다고 한다. 태종 때 함경도에서는 흉년이 들어먹을 것이 부족하자 사람들이 진흙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기근을 면했으며 또 선조 때의 대기근에서도 황해도 봉산 땅에서 부드러운 진흙 70%에 싸라기 30%를 섞어 떡을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황토는 화상 치료에도 특효를 발휘하는데 온몸에 중화상을 입은 사람은 얼굴을 제외한 몸 전체를 땅에 묻고 황토수를 먹이면 화상이 치료됐다. 이밖에도 황토를 이용한 건강요법으로는 지장수요법, 욕법, 목욕법,



<그림 4>. 황토의 효능

찜질요법, 마사지요법 등이 있으며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황토방은 옛날 시골의 황토온돌방에서 지혜를 얻은 것으로 황토를 깔 방바닥을 따뜻하게 가열하여 그 위에 누워 있으면 황토로부터 원적외선이 나와 피부와 건강에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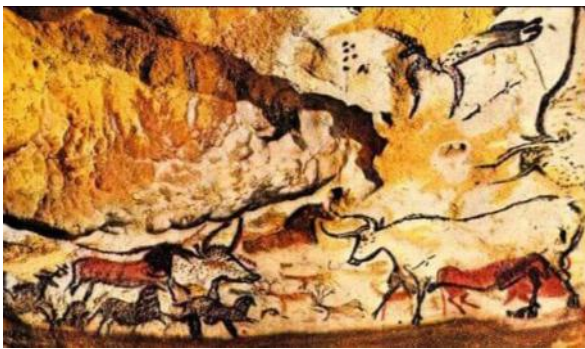
'본초강목¹¹⁾土' 부에서는 흙을 61종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약성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약성이 강한 흙은 황토라고 하며 황토를 독성이 있는 약재들과 섞으면 독성이 중화되며, 독성이 있는 약재들에서는 황토의 성분이 그 약재의 성분을 높여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해경'에서도 흙에 대해 나와 있는데 소나 말의 질병 치료나 종기를 낫게 하는데 황토 요법이 사용되었으며 황토를 생과 사의 매개물로 다루어 황토수(지장수)¹²⁾를 죽지 않는 물로 비유하고 있다.' 옛 왕가'에서는 비밀리에 황실 양명술¹³⁾이 전해지고 있는데 뒷날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데 황토가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또한, 왕과 왕자들이 피로할 때 쉴 수 있도록 3평 정도의 방을 만들 피로회복 실로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한다. 흙에 비친 선조들의 지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황토방과 약탕기를 들 수 있다. 황토방에서 잠을

11) 本草綱目 : 명나라의 이시진이 질병의 치료에 쓰이는 약물을 관찰·수집하고 문헌을 참고하여 저술한 의서.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본초강목(本草綱目))]

12) 지장수 : 황토를 물에 풀어 황토는 가라앉히고 위에 뜨는 물.

13) 왕실양명술(王室養命術)은 조선조 왕실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건강비법으로 식생활을 비롯한 다방면에 유용한 지혜들을 담고 있으나, 기록은 없고 구전으로 전해져 옴.

자고 황토 부엌에서 끼니를 장만하고 황토마당을 가로질러 곡식을 갈무리하는 황토밭으로 이어지는 흙과의 삶이 선조들의 지혜로운 삶이었다. 흙으로 만든 약탕기의 경우 열 침투력이 어떠한 타 용기보다 약 8배 이상 깊숙이 침투되어 약효추출이 뛰어나므로 아직도 널리 애용되고 있다. 흙을 이용한 민간요법으로는 배가 아플 때 황토로 빚은 기와를 불에 달구어 배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감기약으로 배의 속을 파내고 꿀과 생강을 넣어 껍질에 참 종이를 싸서 흙으로 발라 화덕에 굽어 그 즙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시골에서는 상처가 나면 흙가루를 상처에 발라 약으로 대신하였으며, 가축이 병들면 약으로 황토를 먹였다.



<그림5> 알타미라 동굴벽화(cueva de Altamira)



<그림6> 무용총 무용도

이렇듯 인류는 흙(황토)에서 태어나고 흙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다양한 흙의 문화를 이루었다. 회화에서도 최초의 동굴인 알타미라 동굴벽화<그림5>와 우리나라의 고구려벽화 무용총의 무용도 <그림6> 등에서도 채색의 안료로 황토를 사용했으며, 고구려벽화에 구현된 색채에 석면에 회(灰)를 바르고 회칠이 마르기 전에 묵, 황토, 청록, 청자색 물감으로 그렸다.¹⁴⁾

2. 숯

숯 탄(炭)에 대해 살펴보면 설문해자(設文解字나)에서는 ‘나무를 불태우되 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숯가마에서 나무를 탄화시켜 만들어 낸 연료’로 목탄(木炭)이라고도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인간은 6,000년 전부터 숯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숯의 종류는 크게 흑탄(黑炭, charcoal)과 백탄(白炭, charcoal), 비장탄, 활성탄 등으로 나뉜다. 흑탄은 가마 안의 공기를 차단해 천천히 식힌 숯으로 400도 정도의 저온에서 구워낸 숯으로 가스를 50% 정도 제거한 것이고 백탄은 1000 이상의 고열로 정련한 뒤 흙, 재, 탄불을 소분(消粉)을 덮어 빠른 속도로 불기를 꺼버려 가스를 100% 제거하여 식

14) 출처: 국회도서관, 고구려벽화 속에 배제된 사상적 배경과 현대추상미술에 끼친 영향에 대한 고찰.

용으로 적합한 숯이다.

비장탄은 보석을 가공할 때 사용될 정도의 고급 백탄으로 일본 와가야만현 남부 규수 지방에서 생산되는 숯으로 톱으로도 잘 잘리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냄새가 없는 숯이다.

활성탄(活性炭)은 active carbon, activated charcoal로 표기하며 살아있는 숯이다. 백탄은 활성탄인데 다공질이 g당 300m²쯤인데 비해 활성탄이라고 하면 g당 500m²쯤 되어야 하고 고성능 활성탄은 g당 2,000m²(600평) 정도의 많은 다공질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2-1. 숯의 성분

첫째, 공기구멍의 집합체로 g당 300~2,000m²의 다공질이다.



<그림 7> 숯의 확대사진



<그림 8> 흑탄과 백탄

둘째, 숯에는 미생물(근립균, 균근균)이 있으며 주로 식물의 뿌리에 공생하는 미생물로 유기물이 주위에 있으면 이것을 흡착하여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

셋째, 숯은 탄소 덩어리로 탄소 85%, 수 분 10%, 미네랄 3%, 2%의 휘발성분을 가지고 있다. 미네랄은 칼슘(Ca), 철(Fe), 나트륨(Na), 마그네슘(Mg), 인(P), 칼륨(K)으로 구성되어 미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넷째, 백탄의 경우는 전기를 통하며 산도는 pH7 정도이다.

2-2. 숯의 효능

첫째, 방부효과를 들 수 있다. 2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마왕퇴(馬王堆) 귀부인¹⁶⁾과 우리나라의 파평윤씨 모자(母子) 미라¹⁷⁾에서 그 효능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숯은 특유의 다공성(多孔性)으로 방취(防臭), 방부(防腐)의 효능이 뛰어나다. 숯1g 내부의 표면적이 무려 300m²나 된다.

15) 송재만, 『건강을 살리는 숯』, 문예마당, 2007. p.34.

16) 1972년 중국 후난성 창사시 교외의 한 구릉에서 발굴된 여인의 시신, (앞의 책 p.52) 참조.

17) 2002년 경기도 파주 교하에서 발견된 '파평윤씨 모자 미라'로 1556년에 매장되어 회곽이 공기를 차단하고 숯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셋째, 숲은 음이온(-)을 발생하여 산소가 풍부하여 공기를 맑게 하고 생명 활동을 돕는 작용을 한다.¹⁸⁾

넷째, 여과 및 정화 작용으로 숲의 다공체의 흡착 성질이 오염물, 유해물질의 여과 작용을 한다.

다섯째, 습도조절을 한다. 팔만대장경판 보관 건물도 기초에 숲을 넣었으며 사찰의 건물도 지을 때 숲을 사용하며 서고(書庫)에는 반드시 숲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유해 전자파 차단, 방사선(라돈)차단, 냄새 제거 효과, 원적외선 방사효과 등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숲이 가지는 효능과 특성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생활에 널리 사용해 왔을 정도로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3. 송진

송진(松津, 영어: rosin) 또는 콜로포니(colophony)는 소나무 등의 침엽수에서 얻은 액상 수지를 가열해서 휘발성 액체인 테르펜을 증발시켜 얻은 고체 수지를 말한다. 송진이 처음 만들어진 곳은 소아시아의 콜로폰(Colophon)이란 곳이었다. 이곳에서 자란 소나무로 송진을 대량 생산하였기 때문에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송진을 Colophony라 부르기도 했다.¹⁹⁾ 송진은 반투명하며, 노란색에서 검은색까지 색상이 다양하다. 상온에서 송진이 부서질 수 있으나, 가열하면 송진이 용해된다. 송진은 아비에트산을 비롯한 수지산으로 구성되었다.²⁰⁾



<그림 9> 송진 사진과 채취 흔적

18) 유상기, 「참숯(사람을 살리는 신비의 숯)」, 논문, 大韓韓藥 no.3, 대한한약협회, 1999, pp.33-41.

19) Stanleysadie. 「The New Grove's Dictionary of Musicand Musician」, 2001.

20) "colophony". 《옥스퍼드 영어 사전》.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제 2판 1989. (Subscription or UK public library membership required.) "ad. L. colophōnia (Pliny) for Colophōnia rēsīna resin of Colophon".

처음에는 의약품, 미술이나 마술 등 생활 전반에 쓰였으며, 10~12세기에는 전나무나 소나무와 나무들의 표피를 벗기거나 상처를 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수액을 채취하여 만든 송진으로 유화를 그리거나 나무로 만든 배의 방수 처리를 하는 데 쓰이기도 했다. <그림9>는 송진과 송진을 채취한 흔적의 사진이다. <그림 9> 송진 덩어리 참조.

약기에 송진이 사용된 시기는 이슬람이나 비잔틴 시대의 그림이나 문서에서 활을 사용하는 약기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1세기 무렵이라고 추정된다.

송진은 반투명하며, 노란색에서 검은색까지 색상이 다양하다. 상온에서 송진이 부서질 수 있으나, 가열하면 송진이 용해된다. 송진은 아비에트산을 비롯한 수지산으로 구성되어 있다.²¹⁾

인쇄 잉크와 복사기, 레이저 프린터 용지, 바니시, 접착제, 비누, 페이퍼 사이징, 청량음료, 납땀 플럭스, 실링 왁스 등을 송진에 있는 성분으로 만든다. 또한, 송진은 의약품과 껌에 사용되기도 하며, E 번호 E915로 등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글리세롤 에스테르(E445)는 청량음료의 유화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제약 분야에서 송진은 몇몇 석고와 연고의 성분이 되기도 한다.



순수미술에서 송진은 템페라 에멀션 사용되거나 유화를 그릴 때 painting-medium component로 사용된다. 그 송진은 따뜻한 테레빈유에 녹는다. 송진이 의약, 산업, 인쇄, 스포츠 등 의외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송진 덩어리

4. 한지

한지란 닥나무껍질의 섬유를 원료로 하여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제조법으로 만든 종이를 말하며 옛날의 계림지(鷄林紙), 고려지(高麗紙), 조선지(朝鮮紙)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지(韓紙)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수록지는 한지(韓紙)라 부르는데 서리가 내릴 때 닥을 거둬들이고 찬물에서 좋은 종이 만들어진다고 하여서 한(寒) 자(字) 한지(寒紙)라고도 불렀다.

한지를 만드는 공정에서 닥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매년 심어 거두어 들이는 닥풀은 뿌리를 맷돌로 갈아주면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온다. 이것은 물속에

21) "colophony". 《옥스퍼드 영어 사전》.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제2판 1989. (Subscription or UK public library membership required.) "ad. L. colophōnia (Pliny) for Colophōnia rēsīna resin of Colophon".

서 섬유질을 잘 분산(分散)시켜 줄 뿐 아니라 섬유를 가라앉지 않도록 하고 수십 장의 습지(濕紙)를 포개어 놓고 돌맹이로 눌러 탈수를 해도 습지가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잘 분리해준다.

그러나 부패하기 쉬워 보관이 어렵고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은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단점도 있다.

닥풀은 일면 황촉규(黃燭蜀葵, 학명으로는 *Abelmoschus Manihot Medic*)라고도 불리는 1년생 초(草)로 그 뿌리 부분에는 많은 점성질(粘性質)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을에 거둬들여 건조시켜 저장한다. 지금은 PEO(Poly Ethylene Dioxide)와 PAM(Poly Acryl Amide) 등의 합성 풀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²²⁾

종이는 대략 BC 2세기에 중국에서 발명되었으며 1998년 간쑤성 천수 시 팡마탄에서 BC 197~141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무덤에서 종이가 발견되었는데, 이 종이는 마지(麻紙)로 품질이 매우 좋아서 그 이전에 이미 종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³⁾

우리나라에 종이가 전래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일본서기>에 610년경 고구려의 승려 담징이 승려 법정과 함께 일본에 건너가 오경, 채서, 공예, 종이, 먹, 칠 등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그 이전에 제지법이 일반화되어 있었다.²⁴⁾ 고 볼 수 있다. 백번의 손을 거쳐야 한지 한 장 한 장이 완성된다고 하여 한지를 백지(白紙)라고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지>라는 고유명사가 사용된 시기는 1952년에 발간된「대한민국통계연감」이다. 이때 쓰인 한지라는 용어는 단순히 통계의 수월성을 위해 사용되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록지의 통칭적인 의미로 등장하였으며 영문으로는 korea paper로 쓰고 있다.²⁵⁾

우리의 한지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종지로 만든 것이 한지의 재료인 닥나무의 사용에 있다. 조선 시대 이규경(李圭景)이 지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고려의 종이는 천하에 이름을 떨쳤는데, 그것은 다른 원료를 쓰지 않고 닥나무만을 썼기 때문이다. 그 종이가 매우 부드럽고 질기며 두꺼워서 중국 사람들은 고치종이라고도 했다.

4-1. 한지의 특성

우리나라 한지의 주원료는 닥나무의 인피섬유이다. 닥나무는 11월~2월 사이에 채취하며, 2~3m 정도 되는 1년생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닥나무는 겨울에는 몹시 춥고 여름에는 매우 더운 한국 기후의 영향과 비옥한 사질토에서 재배되어 인피가 두

22) 김순철, 『종이(紙)의 이야기』, 도서출판 (주)포장산업, 1992, pp.100-109.

23) 최상임, 「韓紙와 傳統染色의 版畫에의 使用研究」, 국내석사학위논문, 弘益大學校 美術大學院, 2002, p.4.

24) 이승철, 『아름다운 우리 종이 한지』, 현암사, 2012, p.20.

25) 박찬희, 「한지의 특성을 이용한 현대장신구의 오브제 표현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p.42.

껍다. 그러므로 태국이나 중국의 아열대 지방에서 자란 닥나무에 비하여 양질의 한지 원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순수한 닥나무 섬유로 만들어진 종이는 천 년 이상 보존할 정도로 수명이 길다.²⁶⁾

1) 보온성, 보존성 및 내구성

한지의 섬유 사이에는 적당한 공간이 있어서 보온성이 뛰어나다. 한지를 겹겹이 겹쳐서 만든 옷은 화살을 막을 정도로 견고하였다. 닥나무의 인피섬유는 길이가 길고 강하며 내구성뿐만 아니라 보존성도 뛰어나다. 전통 한지의 결을 못 찾으면 찢을 수 없을 만큼 질기며, 물을 먹인 뒤 방망이질을 계속해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다.

한지는 매우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한지를 만들 때 닥나무껍질을 알칼리성인 잿물에 삶아 닥에 있는 불순물을 없애고, 황촉규액을 접착제로 사용한다. 한지를 만드는 과정 중 황촉규액, 잿물을 사용함으로써 닥나무의 질긴 섬유가 손상되지 않게 해준다.

2) 흡수성, 통기성

한지제작의 주재료인 닥섬유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한지의 섬유는 사이사이 공간이 생겨 공기, 바람, 습기를 흡수, 배출하는 특성이 가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이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창호지이다. 창호지는 눈에 안 보이는 무수한 구멍이 있어 방문에 발라 두면 환기는 물론, 방안의 온도와 습도까지 자연적으로 조절한다. 온돌에 장판을 발라 생활했던 우리의 주생활은 방안에 습기가 많은 것이 문제였으나 이 습기를 창호지로 자연 배출되도록 유도해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습기가 많으면 그것을 빨아들여 공기를 건조하게 하고 공기가 건조하면 습기를 내뿜어 알맞은 습도를 유지하게 하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²⁷⁾

3) 빛 투과성

한지를 제조할 때 닥풀의 사용량에 따라 한지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으며, 빛이 투과하는 양에 따라 비침의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직사 일광을 그대로 투과시키는 유리나 달리 창면에 도달한 빛의 직진을 교란해 확산광을 형성할 수 있는 반투명 재료로 햇빛을 투과시키는 특성이 있어 부가적인 장치 없이도 직사 일광을 조절할 수 있다.²⁸⁾

26) 최영숙, 이주은 『한눈에 보는 한지』. 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8, p.56.

27) 박진아, 「전통 한지를 적용한 현대 일상용품 디자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9, p.52.

28) 홍지나, 「전통한옥에 나타난 한지의 활용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6.

4-2. 한지의 종류

전통시대에 종이를 만들 때 사용된 주재료는 닥섬유이다. 하지만 닥나무의 재배와 닥섬유의 채취가 충분하지 못 하면 부재를 섞기도 했으며, 표면의 시각적 효과나 질감의 변화를 주려고 여러가지 다양한 재료를 첨가하기도 하였다. 첨가한 재료로는 식물성 섬유질이 대부분이고 간혹 비단 고치실을 섞기도 하였다.

또한, 종이는 전통시대에 조상들이 살아가던 삶의 현장 곳곳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며 함께 숨 쉬던 친근한 재료이다. 그 때문에 일상적인 의식주의 삶의 공간에서도 인간적인 교감을 전달하는 편지의 형식으로도, 예술적인 정취를 향기롭게 표현하는 매체로서 다양하게 분류되어 쓰였다. 이 외에도 색채에 의한 분류와 특산 지역에 의한 분류, 지역에 따른 분류, 크기와 두께에 의한 분류, 제작방법에 따른 분류, 종이 질에 의한 분류, 등 다양하게 분류하여 사용됐다.

우리나라 전통 한지가 중국의 선지, 일본의 화지와 비교하여 우수한 물성을 갖게 되는 원인을 찾아보면 주원료, 초지 방법, 건조, 마무리 단계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외발뜨기 방법으로 초지한 우리 전통 한지는 흘림뜨기 및 가둠뜨기 초지법으로 제조한 일본의 화지에 비해 매우 우수한 강도를 나타낸다. 또한, 중국의 선지는 섬유를 맷돌로 잘게 갈아서 만든 것에 비해 우리나라 전통 한지는 섬유를 자르지 않고 두드려 만들어 오랜 기간 보존이 가능하다.²⁹⁾ <표3> 전통한지, 중국의 선지, 일본의 화지 비교 참조.

전통한지	중국의 선지	일본의 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닥나무를 원료로 한다. • 일광표백 • 분산제로 황촉규액 사용 • 고해와 도침 과정 : 고해로 인해 닥의 성질이 살아있으며 질긴 종이를 만들 수 있으며 도침을 함으로써 종이를 고르게 펴주어 광택의 효과를 주고 먹의 번짐을 고르게 한다. • 초지법 : 외발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피, 마피, 벗겉을 섞어 원료로 한다. • 지약수즙을 넣어 표백, 분산제를 사용하지 않음 • 맷돌에 섬유를 갈아 종이를 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닥나무, 인피, 마를 섞어 씌 • 분산제로 표모즙과 황촉규액 사용 • 초지법 : 흘림뜨기 및 가둠뜨기

<표 3> 전통 한지, 중국의 선지, 일본의 화지 비교

29) 이승연, 「한지 물성을 이용한 기법 연구」, 새한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9. p.20.

Ⅲ. 제작과정

연구자의 작품이 되는 주재료인 황토를 미술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많다. 인공적인 채색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황토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색감을 선별하여 재료화 시켜야 한다. 초기에는 도자기 토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 이천이 도자기 마을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도자기용 흙을 구해 왔었다. 미용으로 사용하는 황토 분말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작품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 연구자의 작품은 황토를 구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로 말랐을 때 나타나는 색감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토를 작품의 재료로 만들기 위하여 선택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음을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첫째,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없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붉은색이 짙은 황토를 구해야 한다. 그 이유는 황토가 말랐을 때는 색깔이 연해지므로 붉은색을 유지하고 백토를 섞어서 다양한 명도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둘째, 물에 잘 풀어지는 흙을 선택해야 한다. 찰기가 높은 진흙은 물에 잘 풀어지지 않아 수성 접착제와 혼합도 어려우며, 작품제작 후에 갈라지고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할 만한 황토를 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황토가 나는 지역의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하여 황토를 구하였다. 하지만 그대로 사용에는 문제점이 많아서 황토를 물에 개어 앙금을 만들고 그 앙금을 가라앉혀서 고운 황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1. 제작방법

1-1. 황토 가루 만들기

작품제작에 쓰이는 황토를 재료화 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순서	참고 사진	비고
다양한 종류와 색의 황토를 마련한다. 될 수 있으면 붉은 색이 강한 흙으로 선택한다.		황토에 있는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한다.
물에 황토를 푼다.		막대기로 저으며 황토를 푼다. 이 과정에서도 물에 뜨는 불순물과 찌꺼기를 걸러낸다.
양금을 만든다.		양금을 모아서 자연 건조시킨다.
건조를 시켜, 파우더나 덩어리로 보관한다.		황토 덩어리를 종류에 따라 구분 보관한다.

<그림11> 황토가루 만들기

1-2. 혼합재료

황토 고유의 색에 명도를 조절하기 위해 백시멘트와 석고를 사용하였다. 백시멘트와 석고는 각각의 특징이 있음을 실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작품제작 시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백시멘트의 경우는 질감이 거칠고 마르는 데 30분가량 걸리므로 적절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석고의 경우는 질감은 부드러우나 매우 빨리 건조되기 때문에 빠른 표현 작업이 필요로 한다. 검은색을 표현하는 재료로 시멘트와 숯가루를 사용하고 접착제는 믹싱리퀴드와 수성접착제의 사용이 적절하였다. <그림12> 황토의 혼합재료 참조.

백시멘트		물과 섞으면 약 30분 정도에 굳기 시작하고 굳으면 사포와 같이 거친 표현이 가능하다. 단 굳고 나면 굽기의 표현은 어려워진다.
석고		황토와 섞으면 금방 굳어 버리므로 빠르게 작품에 사용해야 하며 고른 면의 표현에 적합하다. 단점은 캔버스에 사용 시에는 부서지는 단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 시멘트		시멘트는 조금만 사용해도 매우 검게 나오므로 단독적으로 검은 바탕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숯가루		접착제와 혼합하여 사용한다. 백시멘트, 먹물과 혼합하여 명도를 조절한다.
믹싱리퀴드 (mixing liquid)		작품제작용 베이스(판넬, 캔버스)와의 접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함. 황토를 혼합할 때도 사용한다.
수성용 접착제		수성용으로 제조된 접착제로 황토와 혼합재료를 섞을 때 황토와 비슷한 비율로 사용한다.

<그림 12> 황토의 혼합재료

1-3. 혼합과정

황토의 명도 조절을 위하여 <그림13>, <그림14>와 같이 석고 또는 백시멘트의 혼합 비율을 달리하여 명도를 조절한다.

황토의 혼합과정		
혼합용 판재에 황토와 백시멘트, 수성접착제를 혼합한다.		수성접착제는 황토의 양과 같게 한다. 백시멘트의 비율은 표현할 황토의 명도와 관계되므로 조절한다. 분말 황토를 사용할 때는 물을 뿌려가며 황토의 찰기를 조절한다.
믹싱리퀴드를 혼합한다.		재료 간의 접착력과 바탕과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믹싱리퀴드를 혼합한다. 사용량은 접착제 양과 비슷하게 한다.
ナイ프를 이용하여 혼합한다.		황토의 색에 따라 혼합과정에서 황토나 백시멘트 등을 추가하며 조절한다.

<그림13> 황토의 혼합과정



황토와 백시멘트 혼합 비율에 따른 명도 조절		
황토 10 + 접착제		황토만 접착제와 섞었을 때는 입자가 굵다.
황토 7 + 백시멘트3 +접착제		백시멘트를 30% 섞으면 조금 흰색을 띠고 입자도 거칠다. 마르면 물에 젖었을 때보다 밝아진다.
황토 5 + 백시멘트5 +접착제		백시멘트를 50% 섞으면 더욱 밝아지고 입자는 더 거칠어진다.

<그림14> 황토의 명도 조절

작품제작 시 황토와 석고의 비율에 관한 실험을 통해 작품을 제작한다. 일반인 황토는 마른 후에 떨어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합 시 판넬과 견고하게 접착할 수 있도록 믹싱리퀴드(mixing liquid)와 목공용 접착제(205)를 섞는다.

접착제와 믹싱리퀴드는 적당량을 배합한다. 접착제의 양이 부족하면 황토가 마른 뒤 부서짐이 생긴다. 작업 상황에 따라, 필요 시 물을 넣어 농도를 조절한다. 시멘트는 접착제와 혼합하고 검은색의 조절을 위해 먹물 혼합한다.

검은색 질감을 달리하기 위해 <그림 15> 시멘트를 주재료로 한 숯과 먹의 혼합과정과 같이 숯가루와 먹물을 첨가하여 혼합한다.

시멘트를 주재료로 한 숯과 먹의 혼합과정		
시멘트와 숯가루 혼합		시멘트는 물과 혼합하면 굳어지므로 바탕제와 접착을 위해 접착제를 시멘트의 1/2 정도 혼합한다. 검은색과 숯가루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숯가루를 적당량 섞는다.
시멘트와 먹물 혼합		혼합된 시멘트의 검은색을 짙게 하기 위해 먹물을 혼합한다.

<그림 15> 시멘트를 주재료로 한 숯과 먹의 혼합과정

황토와 석고(백시멘트)의 혼합비와 비례하여 황토의 명도만 변하며, 석고 양이 많아지면 질감을 부드러우나 빨리 굳어 버리고 마른 후에 깨어질 염려가 높다. 따라서 석고를 사용할 때는 빠르게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작품 제작과정

황토를 주재료로 한 일반적인 작품 제작방법은 본고의 '465miles-2000112' 작품 제작과정을 기준으로 기술한다.





순서	작업 광경	비고
종이테이프 붙이기		종이테이프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 가운데로 찢어서 붙인다.
종이테이프 붙이기		종이테이프 가로 붙이기
종이테이프 붙이기		종이테이프 세로로 교차하게 붙이기
황토 바르기		격자 모양으로 부착된 테이프 사이에 황토를 나이프로 펴 바른다.
종이테이프 떼어내기		황토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종이테이프를 조심해서 떼어낸다. 이때 얇은 황토가 캔버스에서 비정형으로 붙어있게 된다.
종이테이프 제거된 상태		네모 모양의 얇은 황토가 남는다.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없다.
믹싱리퀴드 도포		얇은 황토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포한다.
말리기		믹싱리퀴드가 도포된 바탕을 말린다.

<p>믹싱리퀴드가 마른상태</p>		<p>테이프를 떼어낼 때 바탕에서 일부 떨어진 상태를 유지 시킨다.</p>
<p>캔버스에 조형 표현을 위해 형태를 만든다.</p>		<p>캔버스에 부착된 황토의 균열을 막기 위해 모델링페스트(modeling Paste)로 원하는 모양의 기초바탕을 만든다.</p>
<p>황토를 바른다.</p>		<p>바탕 전체에 다시 접착제와 혼합된 황토를 바른다.</p>
<p>부조된 조형 형태에 원형 자국 만들기</p>		<p>5mm 정도 두께의 황토가 적당히 말랐을 때 원형 자국을 찍어서 표현하고, 아크릴 물감으로 청, 적, 흑색으로 점을 찍는다.</p>
<p>송진가루 바르기</p>		<p>원형 자국에 송진 가루를 뿌리고 화기로 녹여서 광택이 나게 표현한다.</p>
<p>완성작품</p>		

<그림 16> 작품제작 과정

4-1. 표현기법

혼합된 재료들로 작품 제작 하는데 황토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기법을 표현하기 위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제작된 작품사진으로 결과물로 나타내었다.

녹이기			
	황토와 송진을 혼합 후 송진 녹이기	황토를 마른 후 위에 송진 바르기	송진을 황토와 섞어서 표현
			
	송진 녹여 붙이기	황동 부식시키기	
긋기			
	숫 위에 황토를 긋어낸다.	황토가 완전히 굳기 전에 찌거나 긋기 등의 방법으로 음각표현	바탕색이 보이도록 표현
			
	황토가 마르기 전 작업		
태우기			
	소나무를 붙이고 불로 태워서 흔적을 만듦.	판재를 태워서 숫을 만들고 믹싱리퀴드를 바름.	
부식시키기			
	삼베 위에 황동 부식	황동을 칠하고 부식	황동과 부식액 및 금색으로 표현

찍기			
	나무로 찍기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넓은 나이프로 찍어 올린다.	
바르기			
	나이프로 얇게 찍어 바르기	마직 섬유에 황토를 바르기	
떼어내기			
	긁어 떼어내기	떼어내기	점성을 이용하여 떼어내기

<그림 17> 표현기법

연구자가 작업하는 과정은 마치 도예가가 도자기를 만들 듯 재료를 선별하고 불순물을 걸러내어 작품의 재료로 사용할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기다림과 마음을 정확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기다림의 설렘이 있다.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모습이 드러나는 도자기처럼 내 작품도 그렇다. 황토의 물성에 맞는 기법을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여 만들어진 작품은 긴 시간 아픔을 이겨내고 낫기 위한 노력과도 닮아있다. 상처 나고 긁어 떨어지고 눌러서 붙이고 불에 달구어 구워내고 송진을 덮어서 상처를 치유시키는 것과도 같이 작업한다. 황토는 언제라도 돌아가면 반가이 맞아주는 어머니와도 같은 대지이다. 삼베의 조각과 긁어낸 자국 위에 송진을 바르고 굳힌다. 황토의 반죽을 현대 문명을 나타내는 시멘트 위에 한 점 한 점 찍어서 지나온 시간을 나타내고 그 점들 위에 희망의 점을 찍어 내가 가려는 지향점을 나타내었다.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형적 기호를 사용하여 말이나 글자로는 표현하지 못할 감정들을 나열하였다. 무심히 찍어가는 행위를 통하여 치유하는 과정을 표현한다. 황토가 주는 부드러움과 편안함, 자연을 대변하는 에너지를 작품에 담는다.

IV. 작품의 분석과 해석

1. 의미 배경

연구자의 작품을 분석하기 위한 의미해석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출생과 성장 및 사회적 배경과 심리적 상황들이 우선 기술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연구자의 출생과 성장배경들을 연보와 함께 특징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다.

나의 어린 시절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평범한 시골 아이들의 생활과 별다르지 않았다. 농사를 짓지 않는 시골 생활은 크게 힘들지도 않았고 유년 시절 재밌게 놀았던 기억으로 채워져 있다.

1960년대의 우리 사회의 생활상이 그다지 윤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집의 생활도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다.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오남매의 넷째인 나는 고향인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께서는 경상도에서 교편생활을 하고 계셨다고 한다. 눈이 내리던 동짓달 어머니가 집 밖 굴뚝 옆에서 나를 낳아서 방으로 들어오셨다고 한다. 내가 태어나는 달 작은어머니가 시집을 오셨는데 같은 달에 집안에 새 식구가 돌씩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란다. 지금으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지만 그 당시는 그런 풍습도 있었던단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할아버지댁은 마을에서 서당을 하셨다. 디딜방앗간이 집에 있어 가끔 쿵딱거리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원도라 그랬는지 뒷산에 오르면 북한에서 날려 보낸 선전 문구의 ‘빠라’라는 것이 떨어져 있어 친구와 주워서 놀았던 기억이 난다. 학교소풍 때 아버지를 따라갔던 사진을 보면 아버지가 나를 잘 데리고 다녔던 것 같다.



<사진1> 5살 무렵
연구자



<사진2> 가족사진(우측: 연구자)



<사진3> 7살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학교입학 전에는 천자문을 배우기 위해 할아버지 댁 서당에 다녔다. 어린 시절 강원도의 풍경과 추억은 아직도 기억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거제도에서 초등학교 입학할 하여 살던 때는 아버지가 근무하시던 학교에 가서 털실로 짠 바지가 구멍이 나도록 미끄럼을 탄 기억이 난다. 어린 시절 드문드문 생각나는 기억들이 평생 나의 감성과 예술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리라 여겨진다.

초등학교 3학년 남해에 살 때는 토끼를 끼우느라 학교를 마치면 토끼풀을 뜯으러 다니고, 친구들과 마대 자루를 들고 소나무 옹이와 소나무 잎을 빨감으로 쓰기 위해

나무를 하러 다니기도 했다. 농번기 때, 남의 집 모내기 못줄을 잡고 추수기에는 쌀 아놓은 짚단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놀았고 한여름 반딧불이를 잡아 등처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매뚜기, 개구리잡이에 하루해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런 기억들은 나의 생애 풍부한 감성과 자연을 사랑하게 된 경험이 되었다.

유년 시절, 시골에서의 아름다운 추억들은 지금도 텃밭을 일구며 자연과 무언의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된 소중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배우지 않았어도 예체능에 소질이 있었던 것 같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지필묵을 가지고 읍내의 미술대회에 나가기도 하였고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미술, 음악, 체육 과목은 항상 좋은 성적으로 육상대회에서 전교 1등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밝은 에너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 지금까지 즐겁게 작품 활동을 하게 된 밑바탕이 된 것 같다. 학창 생활은 매일매일 학교 가는 것이 기다려질 만큼 재미있고 성실하게 보냈던 것 같다.



<사진4> 군 휴가 중



<그림18> 시간찾기-국전 특선작, 2018



<사진5>2002년 전시장에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여 공학도로서의 꿈을 키웠고, 특전사에서의 군 생활은 힘들었지만, 남아로서 자랑스럽고 인생에서 값진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처음 낙하산을 타고 창공에 날아올랐을 때의 그 색다른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다. 야간 점프를 하며 동료와 낙하산 줄이 엉켜서 죽을 뻔했던 기억들은 지나고 보니 참 다행스럽고 멋진 청년 시절의 추억이 되었다.

대학 졸업을 하면서 SONY 전자에 취직하고 2년 뒤에 대학 시절 만난 동아리 후배와 결혼을 하여, 딸과 아들을 낳고 미래의 아름다운 꿈으로 행복한 날들만 이어질 것 같았던 시간은 불과 5년 만에 멈추어버렸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는 걸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말... “암입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 말.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어 매번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갈 때면 세 살 위의 형이 나를 업고 5층 아파트를 오르내리며 승합차로 서울의 병원까지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멈춰 선 시계처럼 나의 희망과 꿈도 함께 멈춰 서버렸다. 오랜 시간 동안 병원을 오가며 의사 선생님의 짧은 한마디에 희비가 엇갈리고 하루살이처럼 한 달씩을 살아왔었다. 응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 병원에 오가야 했다. 새벽 첫차가 오기를 승차장에서 떨며 보냈던 날들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 속에서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살아야 한다’ ‘살아내겠다’라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이었다.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고 아내의 부모님이 계신 울산으로 이사를 와서 미술교습소를 운영하다가 IMF 경제위기가 시작되던 해 어렵게 미술학원을 차렸다. 상담을 하는데 가끔 학

부모님들께서 원장님은 어느 미대를 나오셨어요? 라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던 나는 적당히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계절학기로 프랑스 파리 국립미술대학(에콜드 보자르 아트)에 한 달가량 다녀오게 되었다. 프랑스 파리에서의 한 달 살이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고 추억이 되었다. 매일 오후 3시까지 수업을 받고 오후엔 파리에 있는 여러 미술관과 루브르박물관 마지막엔 이태리에 있는 베니스 비엔날레까지 구경하는 너무 좋은 경험도 하였다. 역시 파리는 예술의 도시다웠다. 온종일 봐도 다 못 볼만큼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있는 뽁뽁미술관, 피카소미술관과 몽마르뜨 언덕, 베르사유궁전, 베니스의 인상은 단순한 관광여행이 아니었기에 아직도 특별한 의미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런 경험을 계기로 학원을 운영하며 전시회를 하고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다. 살기 위한 직업 때문에 시작된 화가의 길은 어쩌면 숙명의 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밤낮없이 그림을 그리던 시절, 화실에 들어서면 유화 특유의 냄새가 좋았다. 하지만 맘이 재발하고 두 번의 골수 이식을 하게 되는 등 2~3년마다 찾아오는 큰 위기들 속에서 더 이상 유화물감을 내 곁에 둘 수 없었다. 이대로 멈출 수 없어서 고민하던 끝에 초등학교 3~4학년 때쯤의 기억을 떠올렸다. 황토 진흙으로 기차를 만들었는데 마치 움직일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든 기억, 어린 시절 만들기의 주재료였던 찰흙이 황토였고 살고 있는 시골의 집들도 거의 황토벽이었다. 이렇듯 황토는 우리 삶의 가까이에서 거부감 없는 친근한 존재였다. 가끔 시골집 구들장을 고칠 때도 황토를 으깨어 사용하는 광경을 구경하고, 벽을 만들 때도 벚짚을 잘라 섞어서 쓰곤 했던 삶의 곳곳에서 흔하고도 소중한 존재였다.

영혼과도 같은 황토틈 색감. 어쩌면 처음부터 황토틈에 대한 편안함에 대한 갈망이었던가 싶다. 유화를 그릴 때도 번트엠퍼(Burnt Umber)와 시에나(Sienna) 색을 유난히 좋아했었고 모노톤의 색감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단조롭지만 무한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깊이는 나의 작품 주재료로 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이렇게 유화물감을 대신해서 황토를 내 작품의 주재료로 삼아 벌써 15년째 작품을 이어오고 있다.

‘나는 황토로 작품을 해 오는 것이 아니라 황토로 생명을 이어오고 있다’

내가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은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음보다도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도 아닌,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모두가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음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닐까 싶다. 이왕이면 남들에게 인정받는 작품을 남기고 싶음도 빠질 수 없는 이유일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이유가 없지는 않지만,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해 온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여러 번의 전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좋은 작품을 위한 고민과 노력도 많이 했었고 틈틈이 대한민국미술대전에 출품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매년 개인전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나와야 할 전쟁을 벌여왔었고, 내가 살아가고 살아 있음을 실감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었다.

28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내 몸의 암세포와 싸우기 위해 약을 먹듯 그런 맘으로 그림을 그렸다. 계획된 전시를 하기 위해 나를 채찍질하고 버티게 만든 것. 오늘도 작품구상에 몰두한다. 작품 활동을 지팡이 삼아 나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함이며 오늘 하루도 약을 먹듯 나는 작품 활동을 한다.

운명인가? 숙명인가? 어쩔 이미 결정지어진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린 시절 내가 화가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 본적이 없다. 교편생활을 천직을 알고 지내셨던 나의 아버지처럼 처음 직장이 평생직장일 줄 알았다.

아직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의식은 학벌과 맞닿아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실력보다 어쩔 학벌이 더 중요시되는 것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이왕이면 전공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대학

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나는 또 다른 배움과 모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다. 새로운 도전은 항상 설레고 흥미롭다. 내 생애에서 가장 잘한 것은 결혼이고 또한 딸과 아들을 둔 것이다. 참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오르내린다. 힘들지만 지금껏 그래왔듯이 또 걸어간다. 모든 것은

“내가 놓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2022년 2월에 개최되는 프랑스아트페어에 참가 예정이다.

나의 작품은 화려하지 않다.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작품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묵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깊이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숨겨진 마음처럼.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을 감추기 위해 남들보다 더 행복해하기도 한다.

다음은 석사학위 청구전의 작품 ‘465miles’에 대한 의미해석이다.

465miles는 이 거리는 내가 지금까지 28년간을 암 치료를 위해 병원(서울)을 오가는 거리이다. 그 많은 날을 지나면서 디뎠던 발자국들은 흘렸던 눈물이고 간절한 기도였고 말 못 할 이야기들이다. 버리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해 아쉬움과 절망하고 원망했던 것들과 가족에게 못다 했던 잃어버린 시간들의 차곡차곡 쌓인 슬한 감정들을 표현한 작품이다. 우리가 태어나고 마지막에 돌아갈 곳인 어머니의 품과 같은 대지인 황토로 덮어서 감정을 절제시키고 표현을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점들의 이야기 속에 오방색의 점들을 찍어서 염원과 조화의 의미를 암묵적으로 표현하였다.

28년간의 투병 생활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전신이 마비되어서 병원 구급차에 실려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갈 때의 아내와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참담한 마음과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밖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두 번의 골수이식과 30번의 방사선 치료와 수없이 투여했던 항암 주사로 망가져 버린 내 육신과 영혼, 가족들이 받았을 아픔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병든 남편을 병간호하며 어린 남매를 키우고 경제적 부담까지 않았던 아내의 눈물은 하늘이 무너지고 끝없이 캄캄한 터널과 같은 절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두 아이 엄마로서 절망할 겨를도 없이 가정 경제까지 도맡아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껏 나를 지켜주고 내가 하고픈 것을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는 아내의 마음을 나는 안다. 정작 본인이 더 하고 싶었던 미술공부를 나 때문에 꿈으로만 간직해야 하는 심정과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것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도 안다. 너무나 고맙고 가슴 아프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아끼며 사랑으로 갚아야 할 소임이며 소망이다.

속명처럼 다가온 그림 그리기는 먹고 살기 위한 길이였으며 황토를 그림의 재료로 사용한 것은 건강과 미술 활동을 병행하려는 방법이었다. 황토의 치유력과 자연 친화적인 재료에 대한 매력에 이끌려 좋은 황토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고 채취하였다. 재료의 특성에 맞는 소재를 찾고 작품 연구를 하는 과정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28년간 암 환자로 슬한 치료와 후유증으로 망가져 가는 지구환경처럼 점점 황폐해진 나의 몸과 마음을 이제 작품 속에서 표현된다.

석사학위 청구전으로 ‘465miles’라는 작품 제목의 연작을 하였다. 이제는 지나간 아픔과 다가올 아픔은 아픔대로 남기고 맞이하며 그 속에서 나의 방식대로 딛고 다시 도약하려 한다.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나만의 조형적 언어로 밝은 울림을 전하고 싶다.

2. 작품의 의미해석

의미해석을 위하여 청구전에 전시되었던 작품과 연구과정 중에 제작된 다수의 작품들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Scratching story -바라보다



<그림 19> scratching story-바라보다, 45×53, Mixed media on panel, 2020

이 작품은 황토에 긁기 표현기법으로 마치 암각화에 나타난 형상이나 글 또는 기호처럼 나타내어 선사시대의 암각화에 나타난 형상들을 재해석하여 화면에 구성하고 표현한 작품으로 형상 너머에 있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 현대 문명에 파괴되고 점점 사라져가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고 잊혀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갈망하는 의도의 표현이다.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콘크리트를 상징하는 사각의 구도 안에 청동을 오브제로 사용한 동화वाद 같은 조형적 형상을 배치하여 이상이 세계로 가고 싶은 꿈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황토의 표면에는 무수히 많은 조형적 기호를 배치하여 연구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나타내었다. 작품제작에 몰두하는 그 순간의 감정과 느낌을 계획되지 않는 상형 문자와도 같은 기호들을 새겨 넣어 마치 일기를 적은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과거의 형상을 가져와 현대와 대조시키고 자연으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소망



<그림 20> 소망 15×15, Mixed media on panel 2020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빗살무늬 토기 형상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먹을거리를 담는 용도로 사용했을 그릇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용기이다. 그 시대에는 배불리 먹은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을 것이다. 현대인들의 삶 속에도 먹는 것만큼이나 각자가 소망하는 바람들이 있을 것이다.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소망들을 담았다. 연구자는 오랫동안 투병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 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싶음을 간절히 소망해 본다. 작품은 나무 패널에 황토를 덮어서 무늬를 만들고 불을 가하여 그을리고 태워서 시간적 공간의 의미를 표현했다. 태고 때부터 인류는 황토를 기반으로 살아왔고 황토로 돌아간다, 황토는 인간의 삶의 전부이기도 하다.

여기서 전, 울산대학교 문과대 이 노형 교수님의 황토에 대한 글을 아래와 같이 되새겨본다.

갖가지 우주의 기운들이랑 함께 힘 모아
뭇 생명들을 낳고 키워내다
넓은 품속 다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황토이네요.

무용총 말갈기의 바람을 몰아서는
일천 년 황제국의 역사를 이루다가
상감의 운학무늬를
빈틈없이 구워 낼 줄도 알았으며
구들장 놓아두고
솜옷 바지저고리 차림으로는
산줄기 골짜마다 양달들을 골라
곳곳 장독대를 놓을 줄도 알았던 황토입니다.
임진년 전쟁이며 한국전쟁이 말해주듯
때로는 동해보다 많은 피를
기꺼이 한꺼번에 쏟아낼 줄도 알았던
예술이 이곳 조선반도의 황토이기도 합니다.

2021.10 이노형
(고래박물관 상임이사, 前 울산대학교 문과대 교수)

기원하다



<그림 21> 기원하다. 42×83, mixed media, 2020

솟대를 통하여 자유와 갈망하는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솟대는 우리 전통문화에서 청동기, 고조선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새가 사람과 하늘(신)을 이어준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솟대의 새는 오리이다. 오리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물속도 다니는 자유롭고 영험한 전령으로 인식됐다고 한다. 자연 속에서는 새들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앉아 있으나, 작품 속의 새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소망하는 것들이 다름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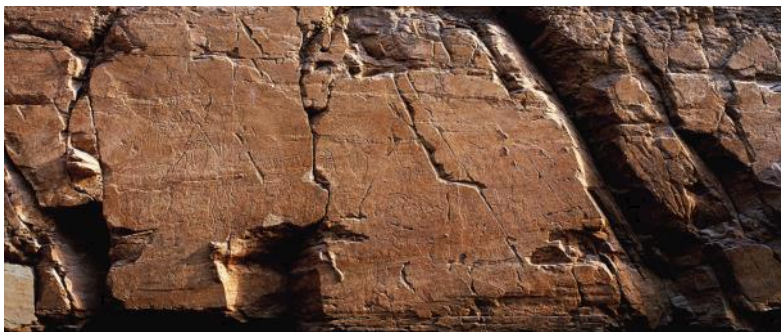
코로나 19로 힘든 시대에 흉한 것을 막아주고 길한 것을 인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실었고 황토의 바탕에 콘크리트 하늘을 대비적으로 배치한 것은 황폐해져 가는 자연의 경고를 의미한다.

형상 너머의 기억



<그림 22> 형상 너머의 기억, 162×130, Mixed media on panel, 2019

이 작품은 2019년도 대한민국미술대전 비구상 부문에 입상작이다. 내 작품의 특징은 황토를 주재료로 한 형태와 질감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한동안 국보 285호인 반구대 암각화의 나타난 문양들을 재해석하여 작품에 옮기고 의미를 부여했다. 작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황토와 시멘트, 동판, 접착제를 사용했으며 부식액을 이용하여 청동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카누와 같은 배를 타고 고래잡이를 나서는 사람들과 고래의 모습을 통하여 삶의 형상을 표현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기본적인 삶은



<그림 23> 반구대 암각화

크게 다르지 않다.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또 같다.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전되어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흐르는 변하지 않은 원초적인 욕망과 감정은 유전자로 대대로 이어져 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작가가 바라보는 형상 너머의 삶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작품으로 표현한다.

작품 전체를 차지하는 고래의 형상은 인간이 꿈꾸고 있는 욕망의 세계이다. 거대한

것에서 오는 강함을 동판의 오브제로 표현하였고 고래 또한 인간과 같은 자연의 한 존재로 공존의 대상임을 표현한 작품이다. 가로와 세로의 강한 구도와 자연을 상징하는 황토와 현대물질 문명을 나타내는 시멘트로 강한 대비를 나타내었다.

465miles-200512



<그림 24> 465miles-200512, 97×116, Mixed media on panel, 2021

“긴 시간 걸어온 발자국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465miles는 연구자가 암 치료를 위하여 한번 병원을 오가는 거리이다. 이 거리를 28년째 이어오고 있다. 술한 시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들 속에서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심정들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다. 숲을 이용하여 징검다리처럼 표현한 것은 생각의 연결 다리이다. 또한, 병으로 인한 압박골절로 무너져 내린 척추를 형상화한 것이다.

황토에 발자국처럼 찍은 흔적들은 고통과 걱정, 그리움, 사람, 등을 표현한 것이다. 소나무가 송진을 내어서 아픈 상처를 덮어 치유하듯 연구자의 작품에도 수많은 아픔의 흔적들을 실제 송진으로 덮었다. 그리고 적색, 청색, 검정의 오방색으로 점을 찍어 새로운 생명을 틔우기 위한 씨앗을 심어 놓았다. 새로운 생에서는 아픔 없는 생명체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아래의 글은 최승훈 조형예술학 박사님 (전 대구미술관장)의 전시 작품에 대한 평론이다.

“465 miles - 김성동의 목시적 세계”

현대 회화는 난해하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렇다. 사실 어렵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비구상회화뿐만이 아니다. 구상회화라서 쉽다 할 수 없다. 이 난해함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하나의 사회를 언어공동체로 보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언어의 규칙과 개념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소통한다. 예술작품의 감상에 있어서도 이처럼 감상자와 작가 간에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작가들은 모두 저마다의 ‘고유의 어법’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 있다.

작가들은 모두 다 나름의 조형 어법을 만들어 간다. 작가의 고유성은 여기에서 나온다. 그렇게 작가들은 일반적 통념을 떠나 자유롭게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저마다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갖고 있고,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을 한다. 그리고 주제, 소재, 창작 과정에서의 여러 요소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들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만이 알 수 있는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면서 내밀한 세계가 만들어진다. 소재와 방법에 대한 무수한 의미 부여는 그 작가의 세계 안에서 새로운 어법을 만들게 되고, 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세계 안에서 작가가 구축해 놓은 개념과 체계를 학습함으로써 비로소 작가와 작품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이해가 종국에는 우리의 인류적·사회적 가치라는 보편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든, 작품의 명제가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라는 지점으로 귀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개개인 작가의 특수성을 알게 되는 것임은 물론 보편성을 확보하여 인문학적 가치에 이르게 되는 매우 흥미로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래도 여전히 작품에 대한 이해는 간단치 않다. 작가의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작가 스스로에게도 명확치 않을 때가 많다. 본인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불가할 때가 있는 것이다. 창작의 세계란 의식과 무의식의 과정이 무수히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질문과 제안을 거듭하게 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게 된다. 김성동은 무얼 그리나? 그림의 의도는 무엇인가? 왜 그리나?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 중인 김성동은 이번 전시의 제목을 <465 miles>라 붙였다. <465 miles>는 그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오간 거리이다. 병 치료를 위해 왕래해야만 했던 이 거리에는 그의 애환이 기억으로 담겨 있다. 28년간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오가며 디뎠던 발자국, 흘렸던 눈물, 간절함, 말 못 할 심정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가 사용하는 재료들을 살펴보면 대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화물감이나 아크릴 물감이 아닌 자연적 재료다. 황토, 숯, 삼베가 그것이다. 그는 그 재료들에 의미를 부여한다. ‘황토’는 대지, 어머니, 귀의할 곳, ‘숯’은 까맣게 타들어 가는 그의 마음, ‘삼베’는 그 자신, ‘시멘트’는 병마, 현대 문명의 폐해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망(意味網) 속에서 우리는 그가 혼자서 고통을 삭이고 역경을 딛고 이겨내려는 의지를 읽게 된다. 척추와 닮은꼴로 나란히 배치한 숯은 한걸음 디디고 나아가게 되는 징검다리를 연상케 함으로써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의 건강한 의지를 담는다. 절제된 화면과 색채와 형태를 통한 내러티브(narrative)한 서술방식에서 그의 심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김성동의 작업은 그가 투병 생활을 해나가는 환자라는 사실에서 볼 때,

용기가 필요한 처절한 몸부림과 같은 것이다. 삶의 기록이며 스스로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붙드는 ‘마인드 컨트롤’의 과정이다.

스스로의 환부를 그린 작가들이 더러 있다. 그들은 자화상을 그렸다. 귀를 자르고 난 후의 자화상을 그린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 몸에 김스한 모습을 그린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 자신의 방식으로 혼란한 심리 상태를 그린 장 미셸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 1960~1988)가 있다. 또 한국 전위미술의 1세대인 정강자도 자신의 투병 상황을 그리고 또 그렸다. 이들은 서사적인 화면을 통해 병마와 싸우는 스스로의 힘듦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한 삶을 영위하며 내일을 기다리는 용기를 보여 준다.

그런데 김성동은 그들과는 달리 아픈 정황을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스스로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가 겪어 온 시간,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는 투병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마는 그래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메시지를 남기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을 상징하는 삼베 조각도 결국에는 황토로 덮어 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황토색 물감으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황토로 ‘덮는다.’라고 인식하는 점이다. 그의 작업을 일종의 비밀스런 ‘제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연관성을 찾아보면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통해 기존 예술계의 통념을 거부했던 루초 폰타나(Lucio Fontana, 1899~1968), 흙, 모래, 돌을 사용하고 기호를 구사했던 안토니 타피에스(Antoni Tàpies, 1923~2012), 지방 덩어리와 기호를 사용한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 한지와 먹, 짚과 명석을 구사한 김홍석(1936~1993)을 들 수 있다.

김성동의 작업은 폰타나의 단색조의 화면과 정연하게 뚫어 놓은 구멍 등에서 받게 되는 미니멀한 인상, 타피에스의 흙, 모래 등의 재료 구사와 기호, 보이스의 반복 기호, 김홍석의 작품에서 보이는 자연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서는 다다(Dada)적 정신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경향이 김성동에게서는 일루전에 의한 감흥과는 다른 묵시적 공간 창출이라는 면에서 같은 성격으로 읽힌다.

타피에스가 겪은 1, 2차 세계대전과 에스파니아 내전, 보이스가 2차 세계대전 시, 비행 중 격추를 당하여 추락한 후 타타르(Tartar)족에 의해 살아나는 과정에서의 체험 등이 그들의 작업관에 결정적 단초가 되는 것처럼 김성동의 경우 생에 대한 깊은 숙고의 시간이 작품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짚을 수 있다.

김성동의 작품의 핵심은 화면이 지니고 있는 심미성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보여 주는 시각적 효과에 있지 않고 삶에 대한 성찰이라는 정신성에 있다. 그에게 캔버스는 구획된 화폭으로서 일루전을 담는 바탕이 아니라 하나의 대지(大地)이다. 그리고 그가 설정한 황토, 숯, 삼베, 시멘트 등의 상징요소들은 핵심적 키워드로 의미망을 형성하며 미니멀한 화면을 이루어 낸다. 2년 전 김성동의 작품을 처음 대했을 때 차분하고 담담한 화면에 따뜻한 감성이 깃들여 있음을 보았으나 이젠 고통과 인내로 점철된 인고의 시간, 그리고 김성동의 치열한 삶 자체에 대해서 더 크게 눈을 떴어야 했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제 필자는 절제된 언어에 의해 쉽게 메시지를 드러내지 않는 그 묵시적 공간 안에서 생각이 깊어지게 된다.

- 2021.8 -
최승훈 조형예술학 박사



<그림 25> 465miles-133012, 91×73, Mixed media on panel, 2021

1994년 겨울 나는 팔 아래로 전신이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목 디스크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며 찾아간 병원의 판정은 다발성골수종이라는 혈액암이 흉추 2번째 뼈에 침범하여 뼈를 눌러 신경이 마비됐다는 것이었다. 내 나이 34살, 29살의 아내와 5살과 1살의 두 아이를 가진 가장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까지 28년간 투병 생활을 해 오면서 가슴 속에서 꺼내지 못한 슬한 감정들을 황토 속에 묻고 또 덮었다. 결국, 말 못할 수많은 이야기를 황토 속에 삼베와 까맣게 타들어 가는 마음을 솟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치료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항암주사를 맞으며 위태로운 생명을 끊어질 듯한 가느다란 줄에 의지하고 있는 심정을 검은색 직선으로 가로와 세로로 배치시켰다. 황토 위에 오브제로 사용한 삼베는 현실 속에서 숨기고 싶은 자신으로 황토 밑에 숨겨놓았지만 그래도 보일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의미하며, 그 위에 황토가 빛이 나도록 철술로 문지르고 닦아서 반질거리게 표현한 것은 내 마음을 다독이고 쓰다듬는 일종의 의식이다.

465miles-180312



<그림 26> 465miles-180312,
91×65, mixed media on panel,
2021

465miles-110312



<그림 27> 465miles-111212,
65×53.2, mixed media on
canvas, 2021

‘<그림26> 465miles-180312’와 ‘<그림27> 465miles-111212’의 작품은 황토의 바탕에 세로의 형태로 중앙에 길게 밝은색의 황토로 조형적 형상을 배치하고 그 안에 많은 원형의 자국을 찍었다. 음각으로 형성된 자국들 안에는 적색과 청색 그리고 검은색으로 점을 찍어서 작은 희망의 씨앗을 표현하여 조형적 기호를 완성하였다. 중앙의 아랫부분에 숯가루나 황토로 몇 개의 점을 찍어서 앞길이 보이지는 않지만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을 징검다리에 비유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삼베를 기다란 조형 아래에 넣은 것과 그 위에 송진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달리하였다. 이 작품 역시 그동안의 술한 이야기들을 조형적 점으로 은유적 표현을 하였다.

465miles-112112



<그림28> 465miles-130112, 65×53.2, mixed media on panel, 2021

작품전시장에서 송진을 사용하여 표현한 작품은 바탕까지 송진이 발려져 있어 광택이 없는 작업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다소 작품의 완성도를 저해한다는 지도교수의 조언이 있었다. 지역의 조철수 작가는 지금까지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형식과 미니멀한 구성의 작품에 큰 칭찬으로 앞으로의 작업 방향이 정해진 것 같다고 하여, 그동안의 고민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465miles 시리즈의 작품들은 긴 시간 동안 병마와 싸우며 걸어왔던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의미여서 조금은 어둡고 애절한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징검다리와 같은 형상은 내가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합병증으로도 볼 수 있는 척추의 압박골절로 통증과 행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항상 곁에 서 있는 척추가 내 몸을 지탱하였으면 하는 바람도 담겨 있다.

465miles-112112



<그림29> 465miles-112112, 65×53.2, mixed media on canvas, 2021

465miles-220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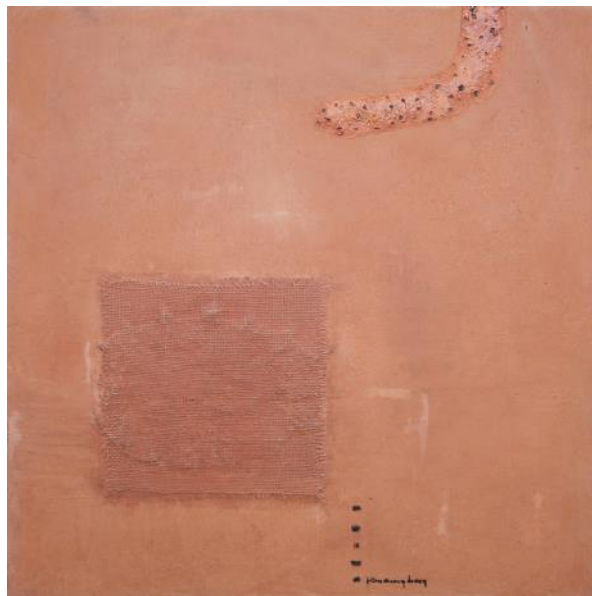
<그림 30> 465miles-220112, 45.5×53, mixed media on panel, 2021

465miles-0304p12



<그림 31> 465miles-0304p12, 80.3×80.3, mixed media on panel,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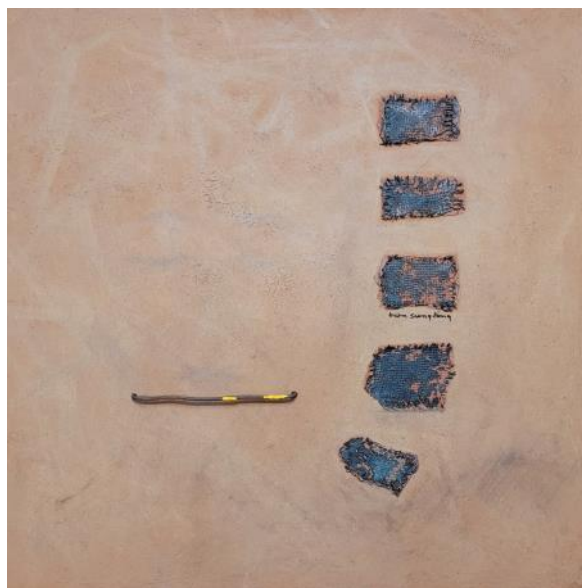
465miles-0705p12



<그림 32> 465miles-0705p12, 80.3×80.3, mixed media on panel, 2021

정방의 바탕에 정방의 삼베를 중앙과 하측 면에 배치시켜 그 위에 다시 황토로 덮었다. 삼베의 아래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형상의 질감을 주어 말하지 못하는 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465miles-0632p12



<그림 33> 465miles-0632p12, 63×63, mixed media on panel, 2021

1997년 IMF 경제위기가 닥쳤을 무렵 내 작품에도 변화가 있었다. 암울하고 힘든 세상에 대한 반항이라도 하듯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의 바닥이나 중단된 건물의 벽면을 주제로 그렸었다. 사용하는 재료도 모래, 흙, 녹슨 철사나 못 등의 쇠붙이였다. 작품 스케치를 위하여 공사장이나 중단된 건축 현장을 다니면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했었던 기억이 난다. 공사 현장에서 주워 온 못이나 쇠붙이 등은 직접 작품의 오브제로 사용하였다. 요즘도 여전히 가끔 녹슨 철사를 사용한다. <그림34>, <그림35>참조.



<그림 34> 녹슬고 있음. 2001



<그림 35> 부도 100F, 2001

15년이 지난 지금도 녹슬고 있는 형상을 표현한다. 이것은 어쩌면 사회적인 현상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재료를 다시 사용하는 것,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때와 지금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팬데믹 모두 힘들지만 견디고 지나야 하는 상황은 같다. 그 속에서 나의 건강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투병생활에서 버팀이 될 만한 견고한 재료가 바로 녹은 슬엿지만 굵은 철사와 같은 것은 아닐까! ‘<그림35> 465miles-0632p12’의 작품은 이런 맥락에서 휘어져 있는 척추를 형상화하고 철사로 그것을 고정하는 의료행위같이 인체를 표현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세로 구도인 작품을 철사를 가로로 배치하여 균형을 맞추고 노란색을 칠하여 중요함과 위험을 알리려는 의미를 담았다. 작품에 철사를 오브제로 사용한 것은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똑바로 서 있고 싶은 의지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황토 위에 나의 신체인 삼베를 붙이고 다시 황토를 덮어서 그 위에 청동 재료로 처리하여 의미망을 형성하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465miles-187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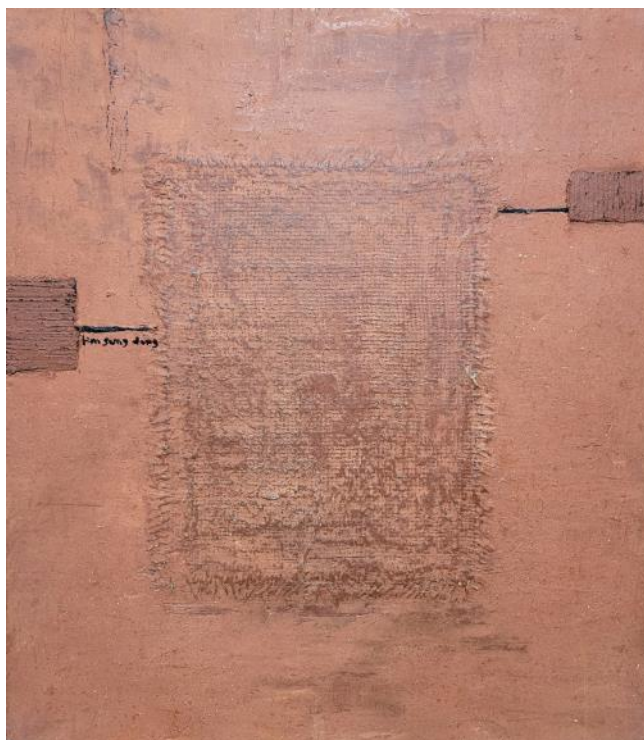
<그림36> 465miles-187112, 69×36.2, mixed media on panel, 2021

‘<그림36> 465miles-187112’ 작품은 앞의 작품과 의미는 같다.

바탕은 모래와 같은 질감의 바탕 위에 숯 조각을 부착하였다. 7개의 조각 중 아랫부분에는 조금 작은 숯 조각이 붙어있다, 이것은 내 척추가 압박골절로 부서져 있는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다. 철사를 곧게 세워서 정상적인 뼈에 지지하여 더는 무너지지 않게 고정한 모습을 조형화시켰다.

이 작품도 아픔을 이기고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작품으로 검은 숯과 철사를 세로로 배치하여 강한 느낌을 연출하고 노란색으로 눈에 띄게 하여 주의를 집중시키는 의도로 표현한 작품이다.

465miles-150112



<그림 37> 465miles-150112, 69×36.2, mixed media on panel, 2021

치료를 위해 지금까지 내 몸을 찢었던 주삿바늘은 몇 개가 될까? 복용한 알약은 과연 얼마나 될까? 너무도 많이 주삿바늘에 찢렸던 혈관에도 굳은살이 생겼다. 지금도 주삿바늘을 꽂으면 어느 혈관은 잘 안 들어간다. 너무나 강한 항암제를 맞아야 하였기에 혈관의 괴사를 막기 위해 주사 관을 직접 심장의 동맥에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서 18개월 동안 가슴에 주사 관을 달고 다녔다. 화면 중앙에 배치된 삼베가 황토에 덮여 그 질감만 남아있다. 오랫동안 치료를 하면서 너털거리는 천 조각처럼 남아버린 내 자신의 형상이다. 양쪽에 검은 솜으로 표현된 주삿바늘이 꽂혀있는 형상을 작품화 하였다. 화면은 무수히 많은 문지름으로 황토가 덮여 있는 표면이 반질거린다. 이것 또한 닳고 닳아 버린 육신과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화면 중심에 사각형의 삼베를 배치한 것은 매우 중요한 나 자신에 의미를 두려는 의도이다.

김성수(철재홍보관관장) 이학박사는 작품속 황토와 삼베의 의미를 이렇게 평하였다.

“삼베는 작가 자신이다. 삼베는 수의를 상징한다. 황토 밑에 삼베 조각 등을 바탕으로 깔고 황토를 덮은 것은 모든 삶에 희로애락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으로 덮겠다는 의미이다. 한편 자신에게 언제라도 초청될 장례의 의식이기도 하다. 하관 후 차곡 차곡 쌓이는 황토가 마치 덧붙고 말리기를 반복하는 에폭시 레이어를 오버랩 시킨 자신 미래의 준비이기도 하다.

황토는 우리가 결국 돌아갈 자연이며, 우리가 딛고 있는 든든 한 땅이며, 대지를 상징하는 어머니 품속이기 때문이다. 황토는 환귀본토(還歸本土)이다. 모든 생명체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황토 밑에는 반드시 삼베를 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는 황토를 덧칠하고 말리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버틸 수밖에 없었던 고통, 차곡차곡 쌓인 슬한 감정 등을 황토(자연 돌아갈 곳)로 덮어서 승화시키고 심은 심상을 표현하였다고 보여진다. “

-2021.8. 김성수 이학박사의 평론 중에서-

465miles-2000112



<그림 38> 465miles-2000112, 130.3×162.2, mixed media on canvas, 2021

‘<그림38> 465miles-2000112’ 작품의 바탕에 마치 작은 네모 종이를 바탕면에 붙인 것처럼, 어떤 것은 완전한 네모이고 어떤 것은 반쯤 떨어진 형태이다. 그리고 전면에 가득 붙여놓은 어떤 황토는 작업 도중에 떨어져 버리고 없다. 간혹 붙어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 이 작업은 의도되지 않은 매우 운명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작업이다.



<그림39> 작업 광경(접착제 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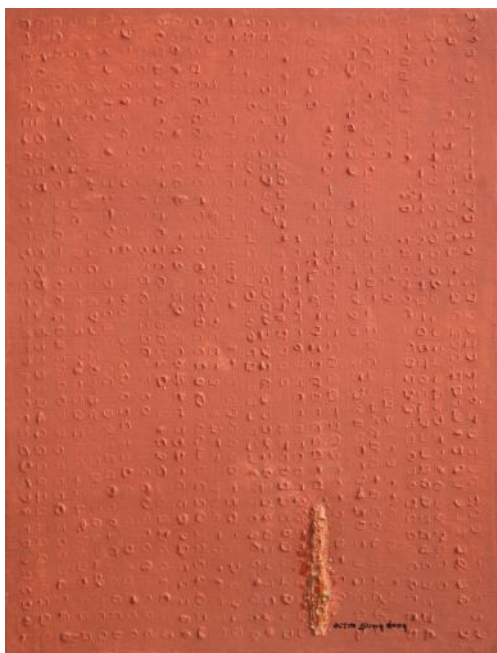


<그림40> 작업 광경(종이테이프 작업)

‘<그림39> 작업 광경 (접착제 도포)’에서와 같이 제작 단계에서부터 점(dot)을 만드는 것도 우연에 맡기고 작업하였다. ‘<그림40> 작업 광경 (종이테이프 작업)’에서와 같이 접착제를 발라 남아있는 네모 형태들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시켰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작업하였지만 남아있는 네모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나마 남은 점들도 떨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것들은 나와 닮았다. 그 많은 날을 치료를 위해 다녔지만, 결과는 늘 위태롭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은 작은 조각처럼 불안하다. 하지만 대자연의 움직임에는 아무런 미동도 없는 것처럼 전체 작품에는 큰 영향이 없다. 작은 점 하나가 있고 없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465miles-1010112



<그림 41> 465miles-1010112, 53×45,
mixed media on canvas, 2021

“정말 멋지다.”

“앞으로는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나의 작업 광경을 잘 알고 있는 작가의
말이다. 지금껏 작업해 온 작품 중에 제일
맘에 든단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런 작
품만 하란다. 전시장에서도 교수님께도

“이 작품 좋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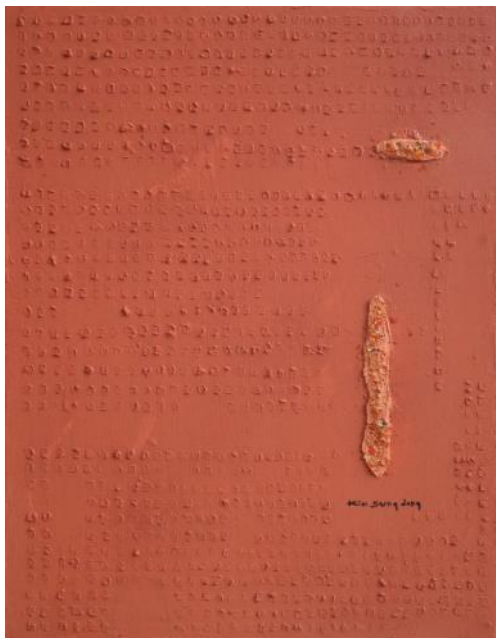
라고 말했다.

‘<그림41> 465miles-1010112’과 ‘<그림
41> 465miles-1020112’의 두 작품은 전
시 기간에 판매되었다.

기분 좋은 일이다. 작가에게는 남에게 작
품을 인정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번 전시작품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
작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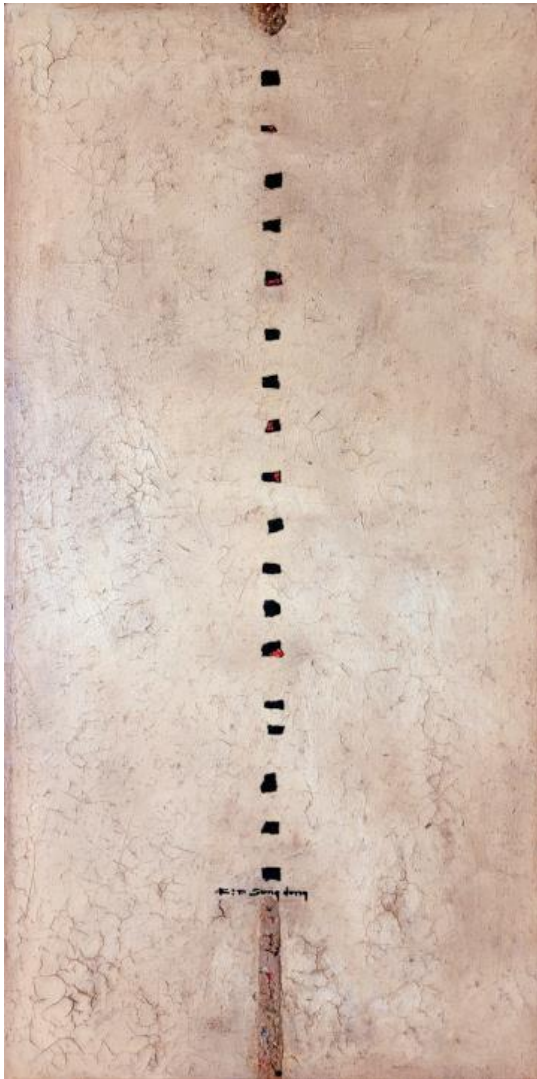
465miles-1020112



<그림 42> 465miles-1020112, 53×45,
mixed media on canvas,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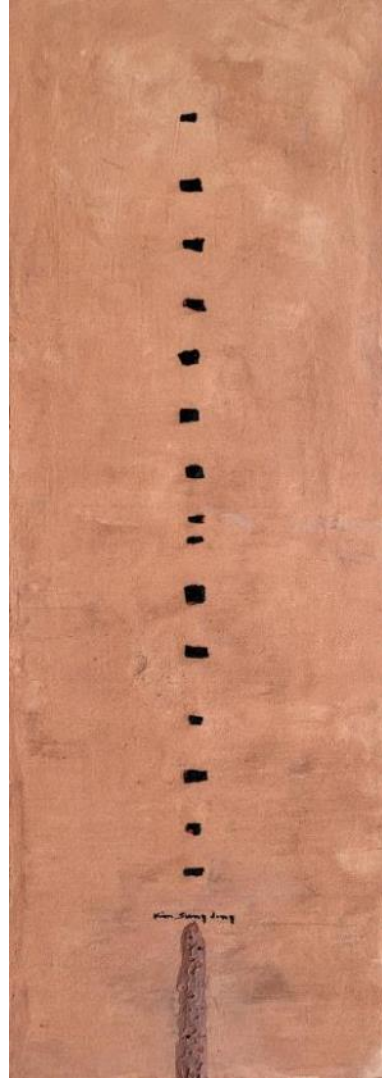
비정형화된 점들이 불규칙하게 찍혀 있
다. 이것들 역시 지나온 시간들의 발자국을
표현한 작품이다. 의도하지 않은 작은 점들
을 찍어 나가는 과정은 시간과 싸움이다.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는 시간이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기도 하다. 이
렇게 사색하며 계획 없이 점을 찍어가는 과
정이 이 작품의 의미이다. 그 결과물은 단
순한 조형적 조화로움 등으로 판단되겠지만
적어도 작가에게는 그 과정이 작품의 전부
인 것이다.

465miles-1002b12



<그림43> 465miles-1002b12, 53×45, mixed media on canvas, 2021

465miles-100212



<그림44> 465miles-100212, 53×45, mixed media on canvas, 2021

두 작품은 비슷한 표현 작품이다. ‘<그림43> 465miles-1002b12’의 바탕은 황토를 크랙(crack)이 가도록 의도한 작품으로 메말라서 갈라진 대지를 표현하였다. 메마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인생을 묘사하였다. 반면 ‘<그림44> 465miles-100212’ 작품은 평탄한 대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두 작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험난하거나 평탄한 길을 각기 걸어가지만 우리들 앞에 닥치는 위기들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함을 비유한 것이다.

세로로 배치된 검은색 사각의 조형 기호들 귀퉁이에 빨강 점을 찍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상황들을 표현하고 색의 단조로움과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를 담았다.

465miles-2005p12



<그림45> 465miles-2005p12, 91×116.5, mixed media on canvas, 2021

황토와 삼베를 붙여서 시멘트를 바르고 그 위에 검은색으로 덮어서 환경이 황폐해지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삼베와 네모 조각들을 황토 바탕에 오브제로 부착하여 찢어지고 병 들어가는 인간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작품이다. 검은색 아래 삼베 사이로 오방색 중에 빨강과 청색의 작은 점들은 배치시켜 봄과 여름의 생명이 싹을 틔우고 푸르게 성장하는 기원의 뜻을 담고 있다.

현대 문명은 환경을 파괴하여 대자연에 재앙이 닥치고 병 들어가지만, 치유의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싹을 틔워서 잃어버린 자연환경을 회복하자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

465miles-110512



<그림46> 465miles-110512, 116.5×91, mixed media on canvas,
2021

캔버스에 삼베를 부착하여 질감을 표현하고 황토를 덮어서 흔적들을 적당히 감추어 느낌만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직조된 삼베의 한 올을 세로 형태의 캔버스에서 가로 방향으로 길게 부착하여 세로 형태의 조형 구조에서 단조로움을 상쇄 시키고 오른쪽 아래에 사각의 조각들을 붙여서 조형적 균형을 맞추었다.

465miles-200112



<그림47> 465miles-200112, 45.5×53, mixed media on panel,2021

패널 위에 한지를 붙여서 단조로운 바탕에 질감을 나타내었다. 왼쪽 위에서부터 작은 사각 점들을 양감으로 나타내어 우측의 조형적 표현에 균형을 맞춘 작품이다.

캔버스가 아닌 합판으로 된 패널을 사용하여 후 작업에서 강한 스크래치(scratch)와 솔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65miles-11412



<그림48> 465miles-11412, 33.3×24.3, mixed media on panel, 2021

황토로 바탕쳐린 된 화면에 시멘트에 작은 알갱이의 발포 스티로폼 볼(styrofoam ball)을 섞어서 부착하였다. 구름을 형상화한 시멘트도 환경이 현대 문명으로 황폐되어가고 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하층의 시멘트 위에 청색의 점을 찍어서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3. 작품의 개요 및 학위청구 작품 목록

3-1. 작품 개요

연구자의 작품에 주제는 465miles이다. 이 거리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28년간 치료를 위해 매년 병원에 한 번 오가는 거리다. 긴 세월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디뎠던 발자국과 한발 한발 내디딜 때마다 슬하게 흘렸던 원망과 걱정 그리고 간절한 눈물들, 말 못 할 심정들을 발자국이라는 조형 기호로 표현하였다.

어느 하루 같은 날이 있으라! 쇠털같이 많은 아픔의 날들을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어머니의 품이자 대지와도 같은 황토로 덮고 찍어 나가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한다. 이것은 단순히 점을 찍는 것이 아닌 연구자에게는 일종의 마음을 다지고 또 다져나가는 의식인 것이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시간들을 작품 속에서 이루고 작가만의 조형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마음속에 갇혀 있는 우울함과 불안한 마음들을 안식하듯 황토는 치유의 약이 되고 작업은 수양의 시간이 된다.

작업은 삶을 이야기하듯, 회상의 노래를 하는듯한 행위로 이어지고 아픈 마음을 치유해 나간다. 연구자에게서 캔버스는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아니라 치유의 공간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느끼고 맘먹었던 것. 그리고 버리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 절망과 원망했던 것들, 잃어버린 시간들, 가족에게 못다 했던 아쉬운 마음들과 같이 차곡차곡 쌓인 슬한 감정들을 황토로 덮는다. 아픔도 기쁨도 한순간의 것 같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상흔들은 황토 밑에 흔적으로 표현하고 치유의 대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싹틔우려는 의지를 묵시적으로 나타내었다. 황토는 자연, 우리가 덮고 있는 든든한 땅, 어머니를 상징하며 마음의 평온을 주는 안식처이다.



<그림49> 경상일보 기사 내용



<그림50> 전시 유튜브 광경

황토와 대별되는 시멘트와 검은색의 숯을 재료로 사용하여 황폐화되어가는 환경을 나타내고, 숯으로 징검다리 형태의 조형을 만들 것은 신체의 척추와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를 의미한다.

황토가 가지고 있는 물성을 이용한 부조와 굽어내어 흠을 만든 것으로 아픔의 상처를 표현하였으며 송진으로 덮어 아픈 상처를 치유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작품에 사용된 색채는 우리 전통의 오방색을 원리를 기본으로 적용하였고 작품의 구성은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나타나는 조형적 표현은 매우 단순화시키고 묵시적인 표현으로 완성시켰다.

3-2. 학위청구전 작품 목록

순서	제목	규격(cm)	재료	제작연도
1	465miles-1020112	53×45	황토, 송진, 접착제	2021
2	465miles-1010112	53×45	황토, 송진, 접착제	2021
3	465miles-130112	53×45	황토, 송진, 숯가루, 접착제	2021
4	465miles-161512	65×53.2	황토, 송진, 숯가루, 접착제	2021
5	465miles-187112	69×36.2	황토, 숯, 철사, 접착제	2021
6	465miles-110512	116.5×91	황토, 삼베, 숯가루, 송진, 접착제	2021
7	465miles-111212	65×53.2	황토, 송진, 숯가루, 접착제	2021
8	465miles-1002p12	90×32	황토, 백시멘트, 숯가루, 접착제	2021
9	465miles-150112	53.2×45	황토, 송진, 모델링페스트, 접착제	2021
10	465miles-100212	93×26.5	황토, 숯가루, 접착제	2021
11	465miles-2005p12	91×116.5	황토, 삼베, 숯가루, 송진, 접착제	2021
12	465miles-133012	91×73	황토, 삼베, 숯가루, 접착제	2021
13	465miles-220112	45.5×53	황토, 송진, 접착제	2021
14	465miles-200112	45.5×53	황토, 송진, 접착제	2021
15	465miles-211412	33.3×24.3	황토, 삼베, 시멘트, 스티로폼볼, 송진, 접착제	2021
16	465miles-180312	91×65	황토, 백시멘트, 송진, 숯가루, 접착제	2021
17	465miles-0705p12	80.3×80.3	황토, 삼베, 숯가루, 송진, 접착제	2021
18	465miles-150112	130.3×162.2	황토, 숯, 먹, Acryl물감, 접착제	2021
19	465miles-0304p12	80.3×80.3	황토, 삼베, 숯가루, 송진, 접착제	2021
20	465miles-0632p12	63×63	황토, 삼베, 동가루, 철사, 접착제	2021
21	465miles-112112	65×53.2	황토, 송진, 숯가루, 접착제	2021
22	465miles-200212	97×116	황토, 백시멘트, 송진, 숯가루, 먹, 접착제	2021

<표 4> 학위청구전 작품 목록표

4. 작품분석

학위청구 작품 중 3점에 한하여 구조분석과 의미분석 및 색채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조분석은 자세한 제작과정을 도해식으로 나타내었으며, 의미분석은 수형도를 이용하였다. 그중 한 작품은 수형도와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차용하여 진행하였다. 색채 분석은 먼셀색표에 근거하여 색을 나누고 구분하여 작품의 주조색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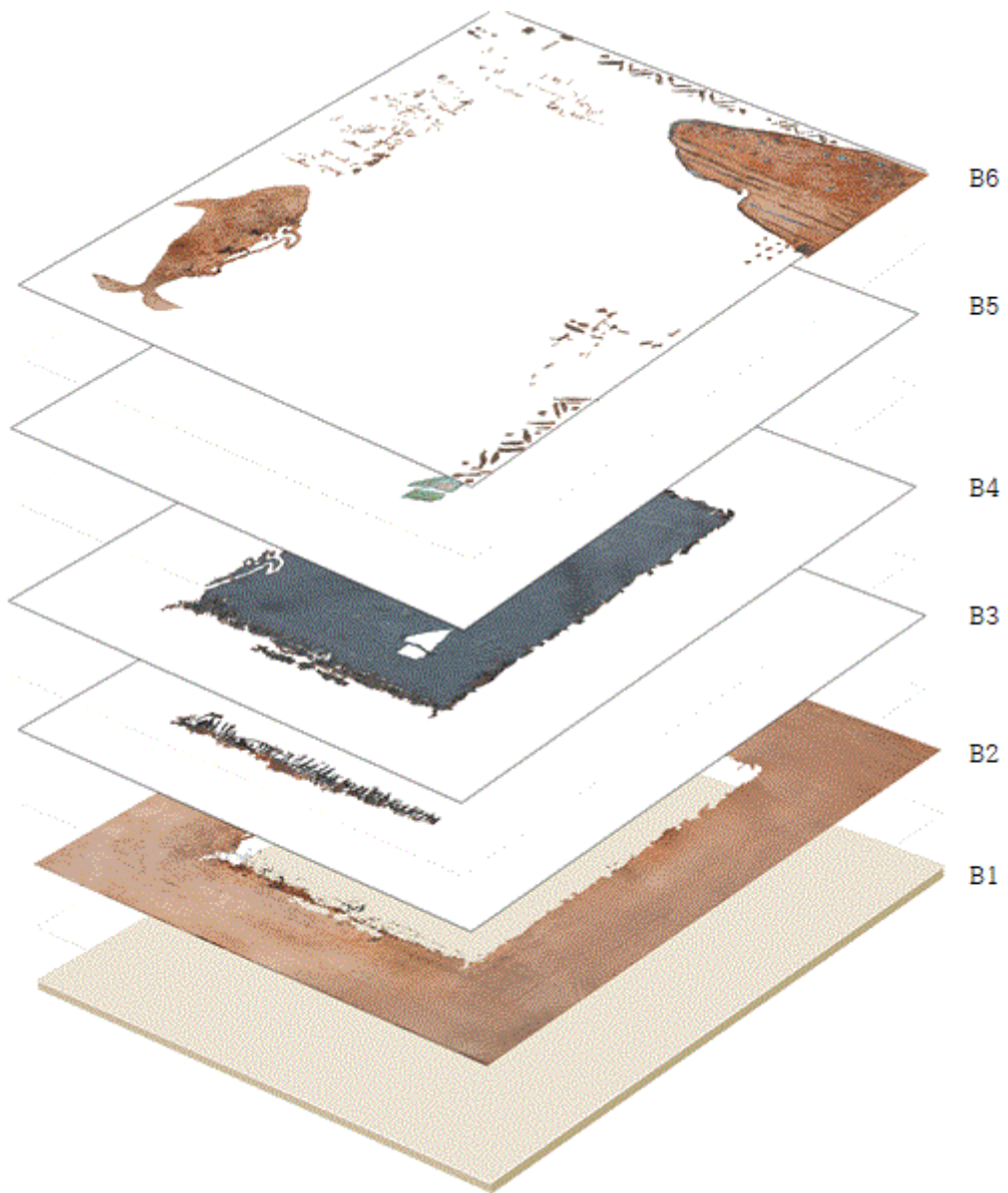
4-1. 표본작품-1 'scratching story-바라보다'



<그림 51> 표본작품-1 'scratching story-바라보다', 45×53cm,
Mixed media on pane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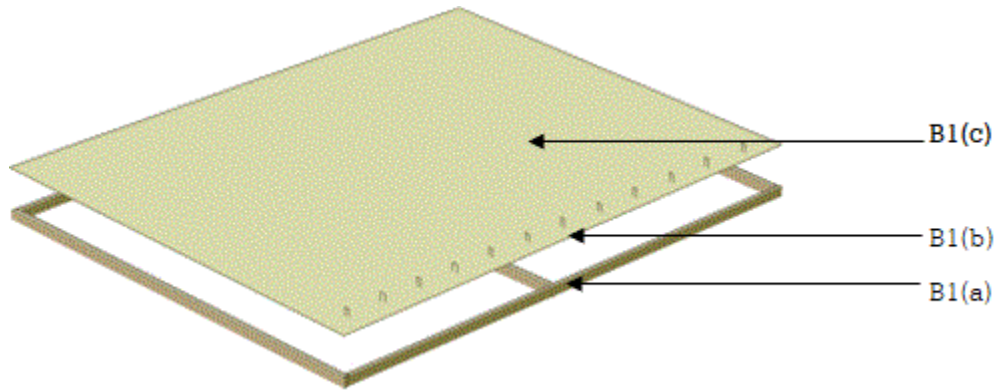
4-1-1. 구조분석

가. 외형적 작품구조



<그림 52> 표본작품-1의 외형적 작품 구조

나. B1(판넬) 구조 및 재료



<그림 53> 표본작품-1의 B1(판넬) 구조도

구분	재료	제작방법	목적
B3(c)	숯, 먹, 믹싱리퀴드 ³⁰⁾	숯과 먹을 접착제와 혼합하여 도포함. 마른 후에 믹싱리퀴드 도포함.	다음 단계의 작업 시 접착력과 방습효과를 높이기 위함.
B2(b)	3mm 합판 ³¹⁾ , 복공접착제, 고정 핀	합판을 B1에 목공접착제를 바르고 고정 핀으로 고정한다.	
B1(a)	가로, 세로 각각2cm 각목		

<표 5> 표본작품-1의 B1(판넬) 재료와 제작법

30) 믹싱리퀴드

특수합성수지 에멀전과 계면활성제 등의 특수 첨가제를 배합한 투명도료.

상도와의 부착성 및 내구성, 내알칼리성, 내후성을 증진 벽화 현상의 방지와 콘크리트의 몰탈면의 강도를 보강.

31) 준내수합판

주로 요소수지(UREA)를 접착제로 제조한 합판.

다. B2 구조 및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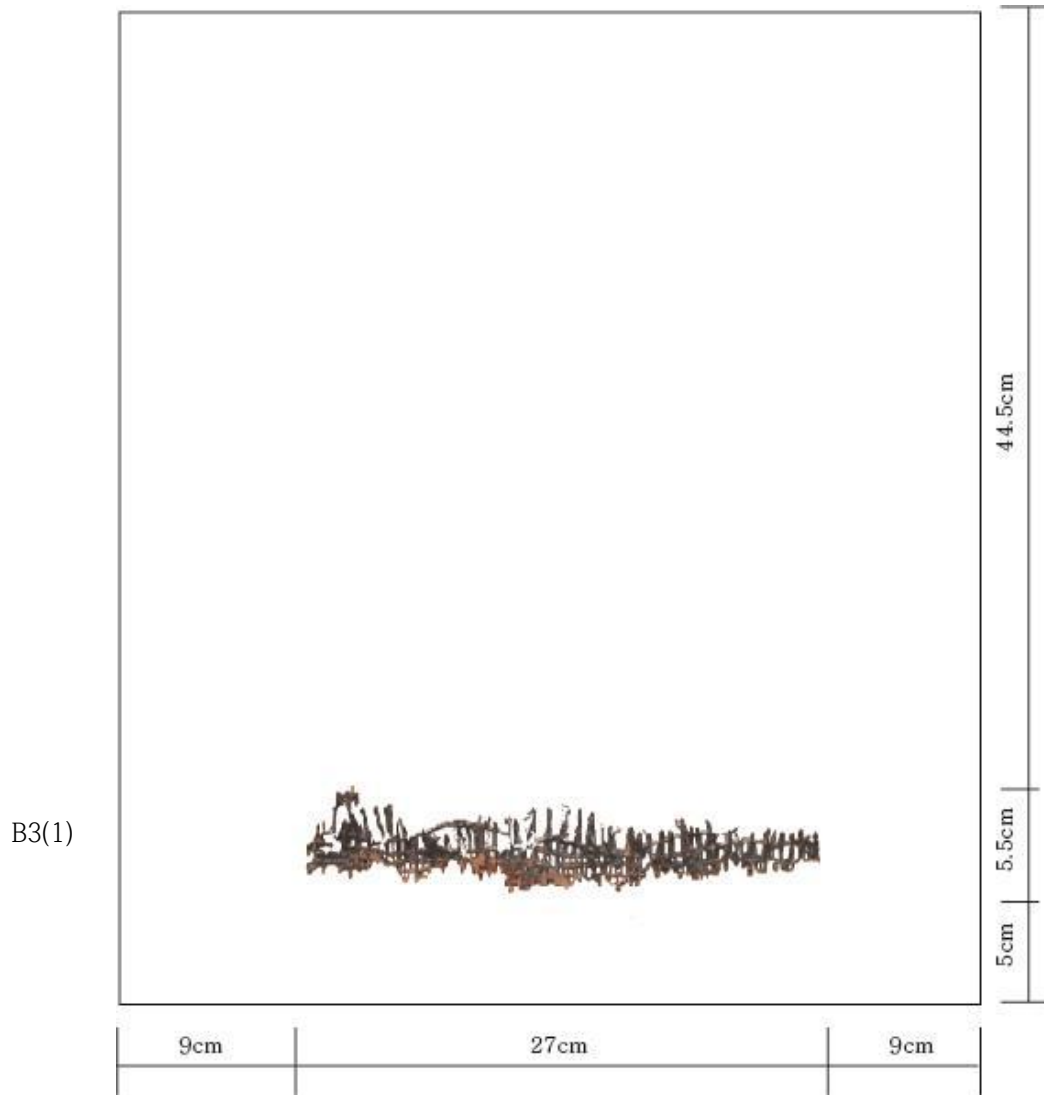


<그림 54> 표본작품-1의 B2 구조도

구분	재료	제작방법	먼셀색표
B2	황토, 백시멘트, 목공용 접착제, 믹싱리퀴드	나이프로 섞으면서 도포함. 부분적으로 색의 변화를 주기 위해 백시멘트의 양을 달리한다.	10G6/6, 6Y7/6 정도의 색이 혼재됨.

<표 6> 표본작품-1의 B2 재료와 제작법

라. B3 구조 및 재료



<그림 55> 표본작품-1의 B3 구조도

구분	재료	제작방법	목적
B3(1)	굵기 1mm의 삼베로 씨실과 날실의 간격이 2mm의 직조물.	삼베를 목공용 접착제(205) ³² 를 이용하여 B1에 부착함.	다음 단계의 작업 시 접착력과 방습효과를 높이기 위함.

<표 7> 표본작품-1의 B3 재료와 제작법

32) 목공용 접착제(205)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로 초산비닐수지 성분임.

마. B4 구조 및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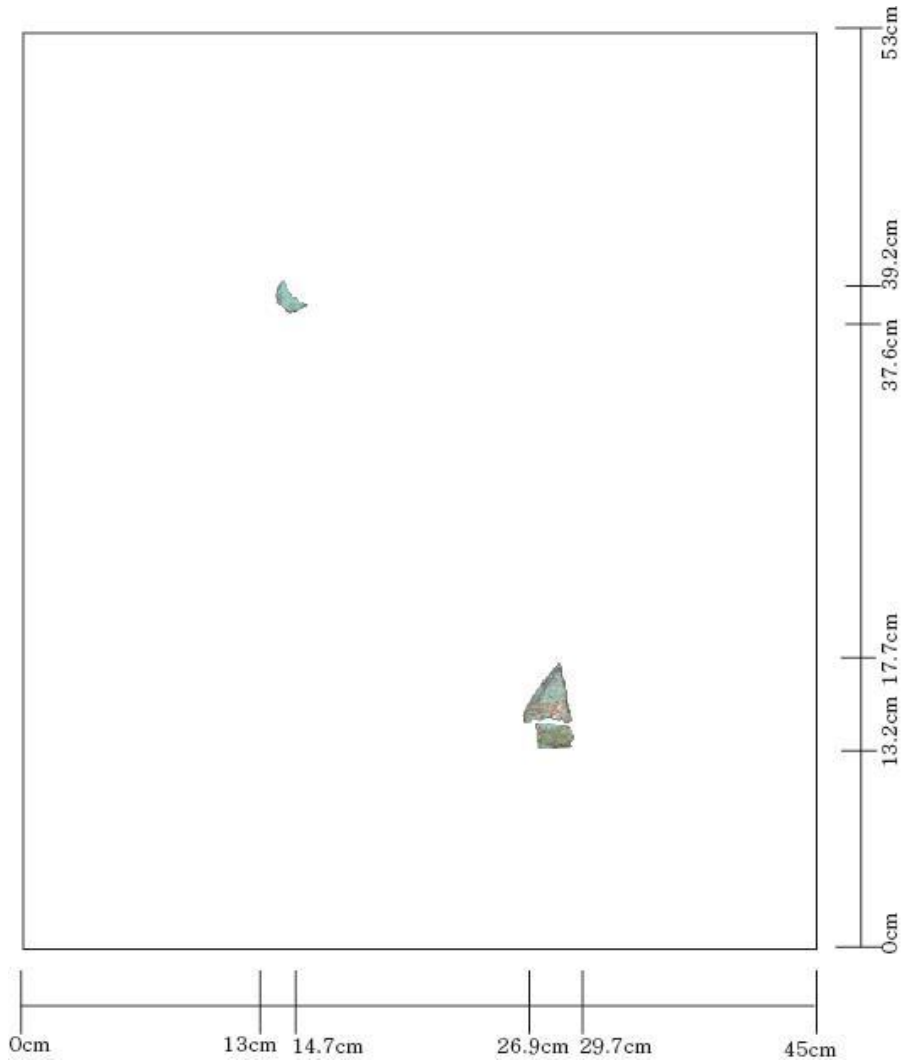


<그림 56> 표본작품-1의 B4 구조도

구분	재료	제작방법	먼셀색표
B4	전 시멘트, 백시멘트, 목공용 접착제	B3가 완전 고형화되었을 때 나이프로 1mm 두께로 도포함.	7.5B3/2

<표 8> 표본작품-1의 B4 재료와 제작법

바. B5 구조 및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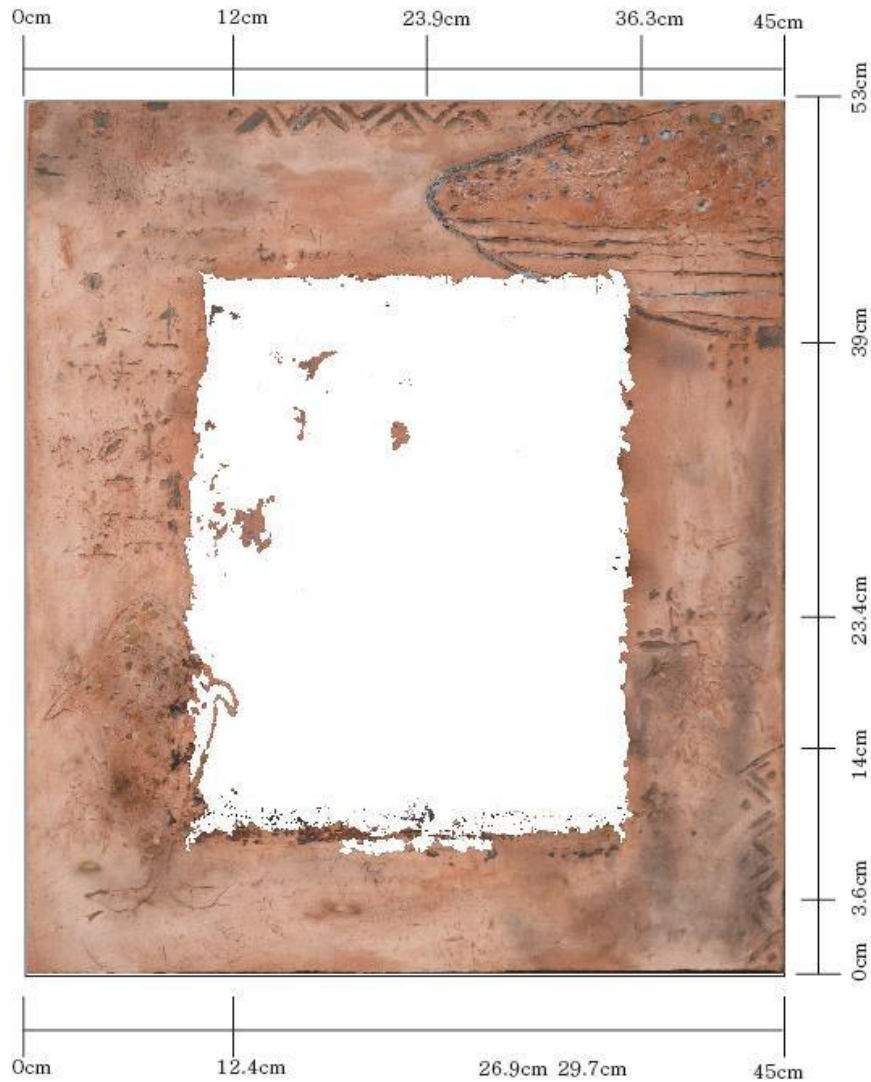


<그림 57> 표본작품-1의 B5 구조도

구분	재료	제작방법	먼셀색표
B5	동판, 청동부식액, 접착제	완전히 마르지 않은 B4에 접착제를 부착하여 눌러 붙인다. 부착 후에 청동 부식액으로 부식시킨다.	7.5YR8/4

<표 9> 표본작품-1의 B5 재료와 제작법

사. B6 구조 및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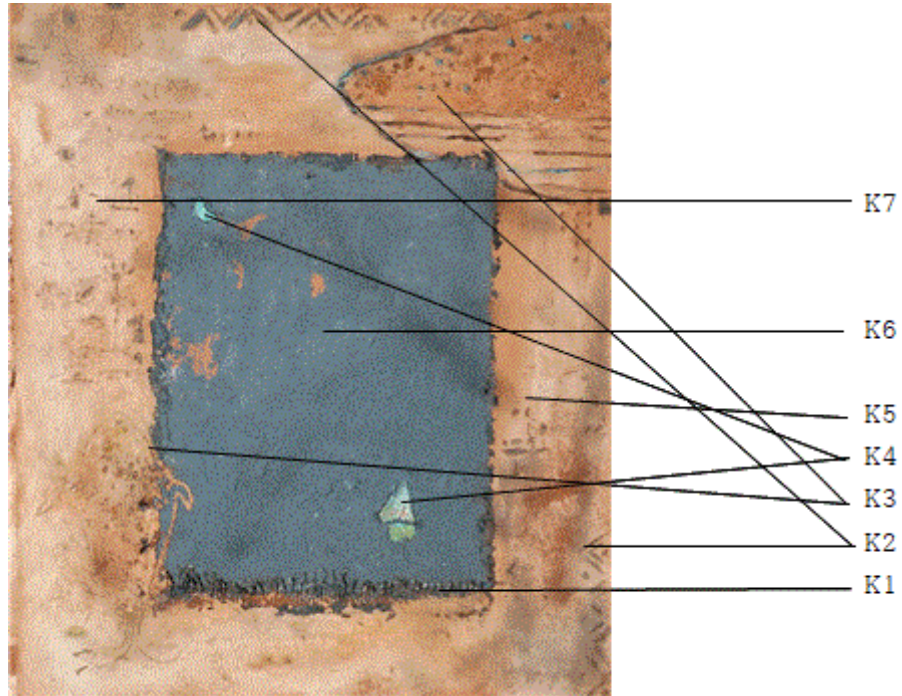


<그림 58> 표본작품-1의 B6 구조도

구분	재료	제작방법	면셀색표
B6	나무, 토치램프, 송진, 나무 송곳, 나이프	B1에 숯과 먹으로 도포된 검정 부분이 나타나도록 대나무 송곳 등으로 긁어낸다. 황토면에 부분적으로 그을음을 입히거나 나무 조각을 태워서 흔적을 남긴다.	7.5Y1/2

<표 10> 표본작품-1의 B6 재료와 제작법

아. 표본작품의 분석표



<그림 59> 표본작품-1 구분도

기호	기표(記表)	기의(記意)	상징의미	재료, 표현기법
K1	격자구조의 선형	자연, 풀, 나무	엮혀있는 현상	삼베, 청동도료, 접착제
K2	삼각 선형	산, 시간	넘어야 할 역경, 삶	scratch
K3	곡선, 점, 선	고래	동행의 대상, 슬픔	scratch, 송진, 청동도료
K4	삼각,사각,반원도형	집, 달	그리움, 가난, 고독	동판, 청동도료
K5	사각형	대지, 어머니	안정, 편안함	황토, 백시멘트, 접착제, 믹싱리퀴드
K6	사각형	창	간혀진 공간, 사색의 시간	시멘트, 백시멘트, 접착제, 믹싱리퀴드
K7	도형,상형문자	기록	흔적, 나의이야기	scratch

<표 11> 표본작품-1의 구조분석표

4-1-2. 의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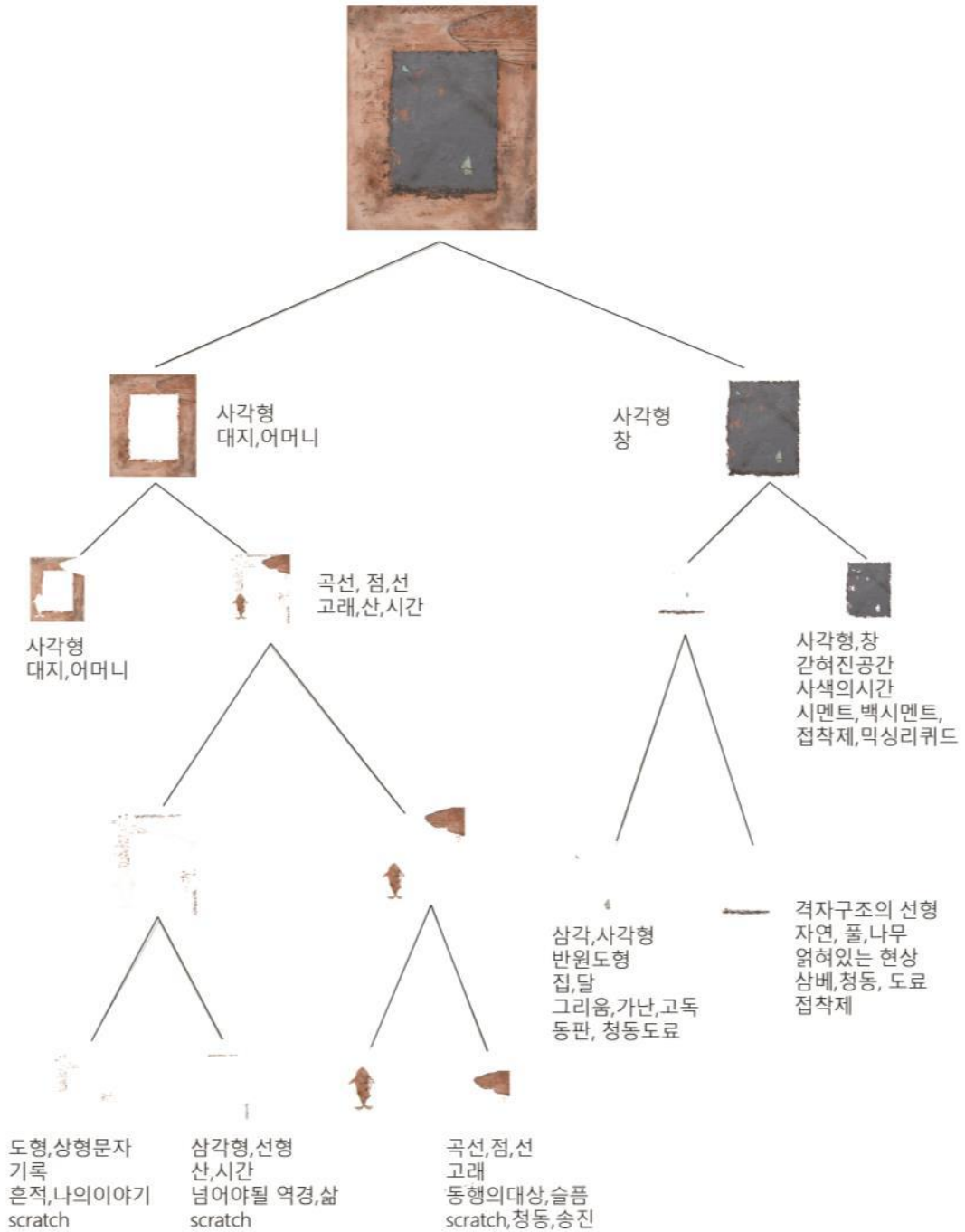
표본작품-1 “scratching story-바라보다”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 문명 속에서 갇혀있는 답답함과 자유롭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작품으로 긴 시간 동안 병마와 싸우며 힘들어하는 연구자의 모습과 마음을 나타내었다. 황토의 바탕에 굵어서 나타낸 여러 가지 조형적 기호들은 연구자가 넘어야 할 산과 같은 험난한 고난의 시간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이야기하듯 일기처럼 기호화하여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주재료인 황토와 시멘트, 숯이 혼합된 조금은 거친 질감으로 마치 선사시대의 인류가 벽화를 그리는 듯한 심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언어가 없던 시대의 인간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였을까? 오랜 시간 동안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바위에 새기어 놓는 것이었으리라 여겼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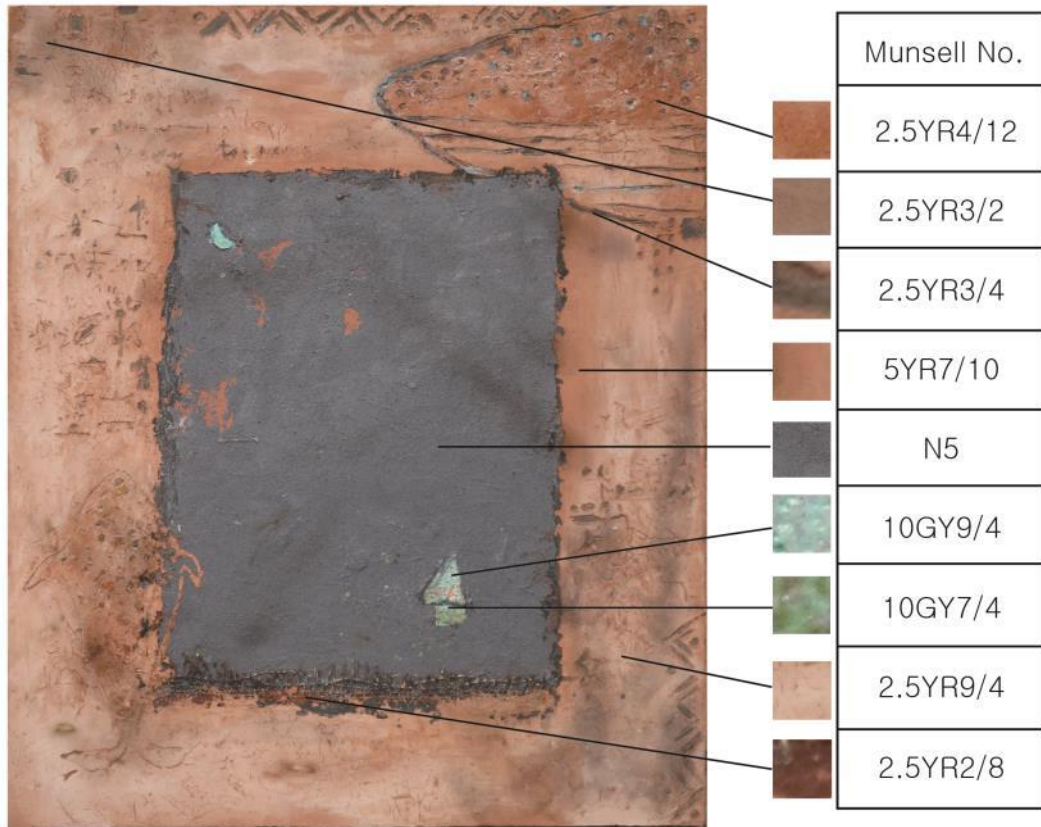
가운데 사각의 검은 색은 숯가루를 시멘트와 섞어서 도포한 것으로 현실의 어두움을 암시하고 암흑의 공간으로 보이지 않고 두렵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할 곳으로 정중앙에 배치하였다. 사각의 하단에 섬유를 부착하여 숯과 시멘트로 덮은 것은 복잡한 현실과 마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창을 통하여 내 마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청동으로 집과 달의 형태를 나타낸 것은 가난과 고독 등을 묘사하여 현재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화면의 오른쪽 위와 좌하 측에 고래의 형상을 가로와 세로로 배치시켜 단조로움을 피하려 하였고 선사시대의 인간에 의해 희생된 고래의 슬픔이 마치 나의 마음과도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외롭고 고독한 어두운 창에서 작지만 파랗게 빛나는 작은 집과 초승달은 소박하고 작은 희망의 마음을 표현하여 건강하고 싶은 마음의 염원을 나타내었다.

4-1-3. 수형도(樹型圖 : Tree Diagram)



<그림 60> 표본작품-1 'scratching story-바라보다'의 수형도

4-1-4. 색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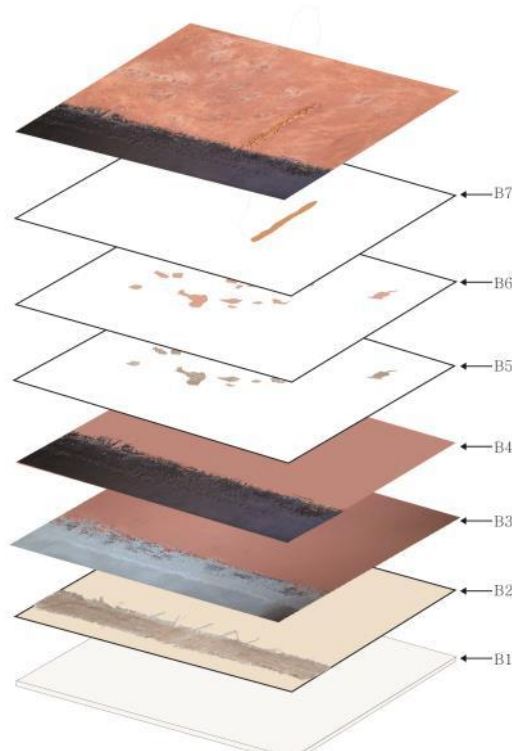
<그림 61> 표본작품-1. 색채분석표

작품의 전체 색의 비율은 짙은 회색 N5가 50%, 황토색이 50% 정도 차지하여 중앙의 N5 색상의 사각형 구조가 강한 느낌을 준다. 황토색의 주조색은 2.5YR9/4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5YR7/10의 다소 짙은 갈색이 부분적으로 15% 정도 분포되어 있어 조금 무겁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

10GY7/9의 밝은 연두색이 N5의 어두운 바탕에 배치되어 있어, 시선을 집중시킨다. 전체적으로 황토의 갈색이 가지는 의미는 갈색은 대지를 상징하는 색으로 안정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연구자도 작품을 통하여 안정된 환경으로 회귀하고 싶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중앙에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다소 무거운 색으로 환경의 파괴가 인간에게 위협으로 다가옴을 암시한다.

4-2. 표본작품-2 '465miles-2005p12'

4-2-1. 구조분석



<그림 62> 표본작품-2(465miles-2005p12, 116×91cm Mixed media on panel 2021) 외형적 작품 구조

구분	재료	제작방법	목적
B7	황토, 송진	황토와 접착제로 2mm 두께의 높이로 긴 형태의 모양을 형성시킨다. 둥근 나무젓가락으로 눌러 둥근 모양을 만든다. 그 위에 송진을 올려서 불로 녹인다.	황토 위에 음각의 자국을 만들기 위함.
B6	황토, 목공용 접착제, 믹싱리퀴드	B5에 부착된 삼베 위에 황토 도포	오브제(삼베 조각)를 숨기기 위함.
B5	삼베 조각, 접착제	삼베 조각을 황토 위에 접착제로 부착.	찢어진 심신을 표현.
B4	아크릴 물감 채색	삼베 위에 검은색으로 도포하기 전에 아크릴 물감으로 점을 찍는다.	청, 적색 물감이 삼베의 울레 문도록 시멘트 도포 전에 채색함.
B3	황토, 시멘트, 믹싱리퀴드, 백시멘트	황토를 보드와 믹싱리퀴드를 혼합하여 도포한다.	합판과 황토의 접착력 향상.
B2	삼베, 접착제	삼베 천을 목공용 접착제로 부착.	합판과 고정.
B1	합판, 접착제	합판을 부착하여 판넬 제작.	재료가 부서지지 않도록 평평한 판넬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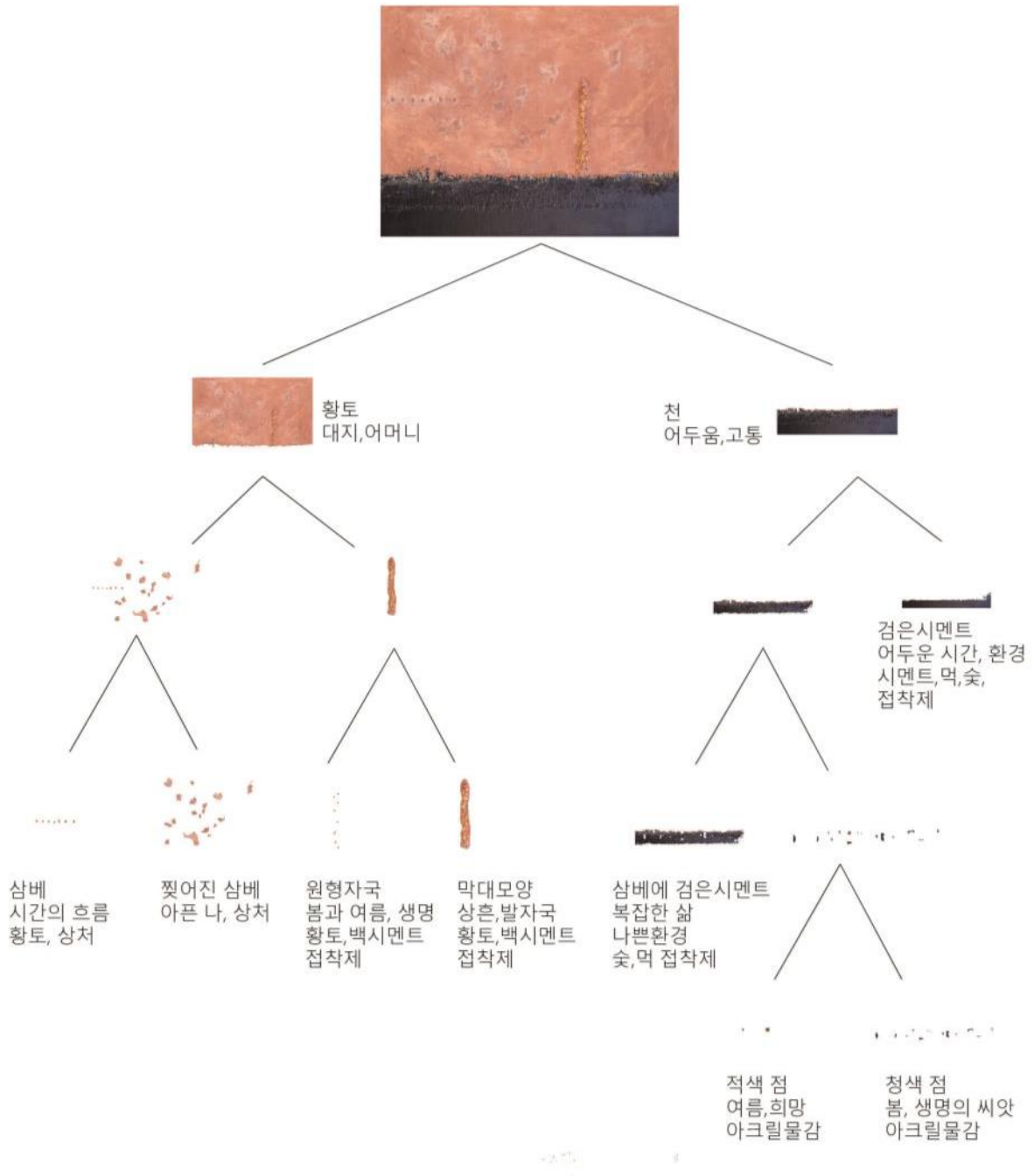
<표 12> 표본작품-2의 구조별 제작표

4-2-2. 의미분석

표본작품-2 “465miles-2005p12”는 오랜 시간동안 투병생활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려 황폐해진 나 자신과 나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을을 비구상으로 재구성된 작품이다. 주재료인 황토 위에 나 자신을 표현하고 치유하고 싶은 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삼베는 우리의 장례의식에서 수의(壽衣)의 재료도 사용되는 것으로 이 작품에서는 나 자신을 의미한다. 삼베를 찢어서 조각 낸 것은 아픈 육신과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확연하게 드러내지 않고 황토 밑에 숨겨 놓은 것은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동네에서 생업을 이어가던 아내가 병든 남편을 두고 어떻게 일에 집중 할 수 있었겠냐는 주변인들의 시선과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 나는 맘대로 집밖에 나다니지도 못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아이들도 아빠가 아프다는 놀림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다.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모습은 어디를 가더라도 눈에 띄기 마련이었다. 이런 심정은 나를 속으로 원망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로 돌아와 작품 안에 놓여있는 것이다. 작품의 전면 70% 정도가 황토로 덮여 있고 하단의 30% 정도는 마직 천을 부착하고 시멘트를 덮었다. 이런 작업은 현대 문명으로 자연환경이 황폐해졌음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 전통색인 오방색³³⁾중 겨울을 나타내는 검은색을 그 위에 채색한 것도 아직은 춥고 어두운 겨울과 같은 마음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검은 색을 덮기 전에 청색과 적색의 물감으로 몇 군데 점을 찍어 놓은 것은 봄을 상징하는 청색과 여름을 상징하는 적색으로 아직은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는 내 자신이 살아 있음을 색으로 표현한 것이다. 동토(凍土)아래에도 언젠가는 봄이 되면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수많은 이야기들을 작품의 오른쪽 위 긴 형태의 부조에 둥근 점을 찍어 그 속에도 청색과 적색, 흑색의 오방색으로 점을 찍어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많은 이야기들을 조형기호로 표현한 작품이다.

33) 오방색은 우주의 질서이자 원리로 흑과 백의 색으로 나타난다. 오정색은 음과 양에서 추출한 오행을 담고 있는 기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청(靑),적(赤), 황(黃), 백(白), 흑(黑) 다섯 가지 기본색을 오방색이라고 한다. 오방에는 각 방위에 해당하는 5개의 정색이 있고, 다섯 개의 정색 사이에는 다섯 가지의 간색이 있다. (문은배, 『한국의 전통색』, ㈜안그라픽스, 2012, p.125) 참조.

4-2-3. 수형도(樹型圖 : Tree Diagram)



<그림 63> 표본작품-2 “465miles-110512”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4-2-4. 기호사각형

연구자의 작품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의미망 구축작업을 실행함으로 기호를 해석하는 방법을 전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A. J. Greimas)의 기호사각형(Carré sémiotique)을 활용하였다. 기호사각형은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로 불리는 이분법(binarity)적 대립 관계에서 출발한 모델이다. 그리고 의미의 심층 구조 속에 보편적이며 논리적인 모습을 띄고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된다.³⁴⁾

가. 구조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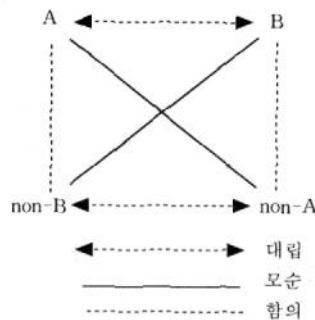
투병생활로 지쳐있는 감정을 황토 밑에 마티에르로 표현하고 상처를 치유하듯 황토로 덮어서 감정을 절제 시킨 작품으로 전체 구조를 기호적 형식에서 조형적 대조로 분석해 보면 크게

- ① 황토색의 배경
- ② 검은 색으로 덮인 섬유
- ③ 세로형태의 기둥
- ④ 찢어진 삼베조각

상하가 황토와 검은색으로 시멘트가 덮인 바탕으로 대비 된다. 좌우로는 좌측은 삼베조각과 징검다리과 같은 점들과 우측은 캔버스 높이의 반 정도 차지하는 세로 형태의 조형 구조로 나타내었다. 우측 세로형태의 조형구조는 음각의 둥근 홈이 여러 개 찍혀있고 그 위에 송진이 덮여져 노란색을 띠고 있다. 아랫부분의 바탕 25%에 해당하는 높이만큼은 섬유가 바탕으로 깔려있어, 메마른 들판이나 숲을 나타내어 환경을 표현하고 있다. 몇 군데의 적색과 청색의 점들을 찍어 무채색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보색 대비를 통한 긴장 된 느낌을 주고 있다.

이 구조를 의미가 있는 형태면과 배경면의 대립쌍(binary opposition)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대립쌍을 찾게 된다.

기호사각형을 구축하기 위해 기호학은 언어내에서 작용하는 두 가지 유형의 대립관계, 즉 결성관계와 질적관계, 달리 말하면 모순과 대립을 인식한 구조 언어학의 지식을 이용한다.



34)



<그림 64> 465miles-2005p12 116x91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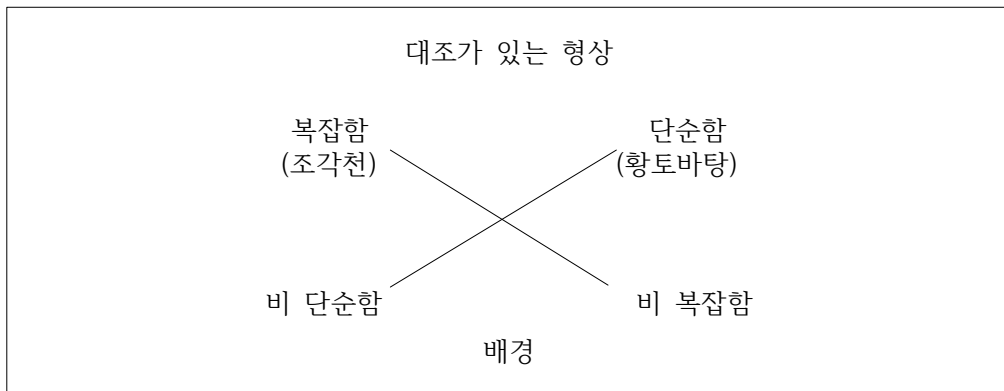
형태면

흩어진 천조각-----/ 대 /-----몽쳐진 섬유
 황토배경----- / 대 /-----검은색 배경
 조각난 삼베----- / 대 /-----황토 부조 조형
 청색 점 ----- / 대 /-----적색 점
 양각의 조형----- / 대 /-----음각의 조형
 삼베조각----- / 대 /-----사각조각(징검다리 모양)

배경면

상단의 황토 -----/ 대 /-----하단의 검은 바탕
 상단의 밝음 ----- / 대 /-----하단의 어두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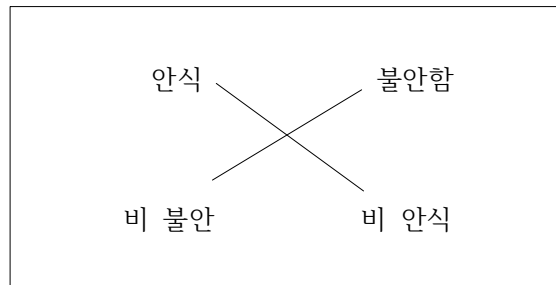
전체를 구성하는 세 부분을 조형적 자질들의 관계 구조를 다음과 같이 기호사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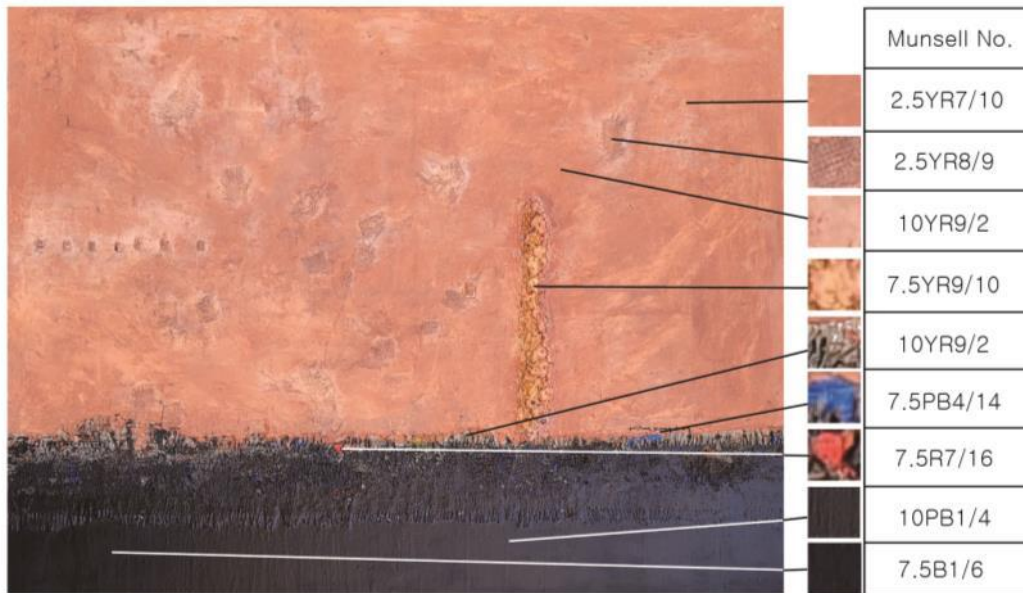
나. 구조에 대한 '의미'의 대응적 시도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는 삼베는 연구자 자신을 나타내는데, 황폐한 환경으로 인한 병든 심신을 의미하고 있다. 어머니와 같은 황토의 대지 위에서 안식을 찾고 치유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파괴되고 황폐해진 주변 환경에서 우리 전통 색 중 벽사의 색인 적색 점을 찍어서 악한 것을 물리치고 생명의 씨앗을 심어 봄을 기다리는 희망의 의미를 청색으로 표현하였다. 전체바탕에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황토 바탕은 그리움과 안식의 공간으로 반평생 투병 생활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려는 의도로 표현된다. 왼쪽의 찢어진 천이 치유 과정을 통하여 오른쪽의 평평한 황토 바탕으로 표현됨을 볼 수 있다.

작품의 구조적인 표현은 밝음과 치유를 의미하고 있으나 배경의 어두움과 대립하고 있다. 작품의 의미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기호사각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2-4. 색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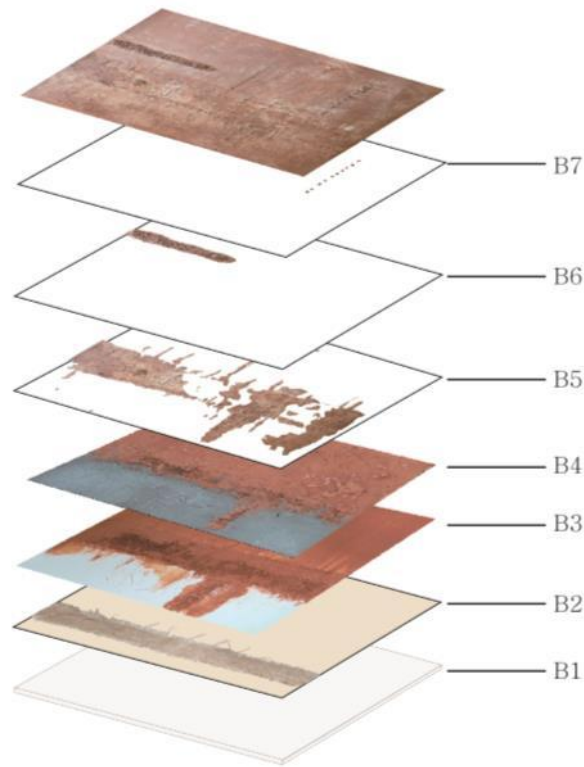


<그림 65> 표본작품-2의 색채분석도

황토색(먼셀 No. 2.5YR7/10)이 가지는 따뜻하고 편안함으로 작품을 이끌고 하단의 35%가 검은색(7.5B1/6)으로 위축되고 긴장된 색조를 하단에 배치시켜 매우 강한 색구도로 표현하였다. 검은색 위에 작지만 적색(7.5R7/16)과 청색(7.5PB4/14)이 주는 시각적 궁금증과 황토 면에 세로 형태의 동일계열의 밝은 황토색(7.5YR8/10)에 시선을 집중시킨다.

4-3. 표본작품-3 '465miles-110512'

4-3-1. 구조분석



<그림 66> 표본작품-2 465miles-110512
91×116cm Mixed media on canvas 2021) 외
형적 작품 구조

구분	재료	제작방법
B7	황토, 믹싱리퀴드, 접착제	네모형태의 양각을 만들어 바탕에 붙인다.
B6	황토, 믹싱리퀴드, 접착제, 나무젓가락, 송진, 물감	황토의 점도를 높여서 양각의 형태를 만들고 나무로 둥근 자국을 만든다. 그 위에 송진 가루를 뿌려서 불로 녹인다.
B5	황토, 백시멘트, 믹싱리퀴드, 접착제	시멘트가 마른 후 황토를 덮는다.
B4	시멘트, 백시멘트, 접착제, 믹싱리퀴드	마직 천이 부착된 부분에 시멘트를 도포한다.
B3	황토, 접착제, 믹싱리퀴드	황토를 접착제와 혼합하여 마직 천을 바탕에 바른다.
B2	마직 천, 접착제	마직 천을 가로로 길게 잘라 접착제로 부착한다.
B1	캔버스(50F), 믹싱리퀴드	캔버스 천에 믹싱리퀴드를 도포하여 접착력을 높인다.

<표 13> 표본작품-3의 구조별 제작표

4-3-2. 의미분석



작품명	465miles-110512
재료	황토, 백시멘트, 전시멘트, 믹싱리퀴드, 목공접착제, 송진, 아크릴물감, 마직 천,
제작방법	캔버스에 황토를 믹싱리퀴드와 접착제를 섞어서 도포하고, 그 위에 마직 천과 시멘트, 황토를 도포하여 마티에르를 만들고 송진을 덮고 불을 가열하여 광택을 낸다.
규격	91×116cm
제작연도	2021

<그림 67> 표본작품-3 465miles-110512

표본작품-3은 황토와 마직 천을 이용한 질감과 황토 위에 부조 형태로 황토를 부착하여 작은 둥근 음각으로 마치 작은 웅덩이처럼 자국을 표현한 작품이다. 색감은 황토색이 가지는 갈색계열의 모노톤으로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전체적인 구조는 좌측에 올이 굵은 마직 천위에 황토를 덮은 복잡한 바탕을 이루지만 우측은 세로의 조형과 가로로 배열된 작은 네모 형태의 조각들을 가로로 배치시켜 대비와 균형을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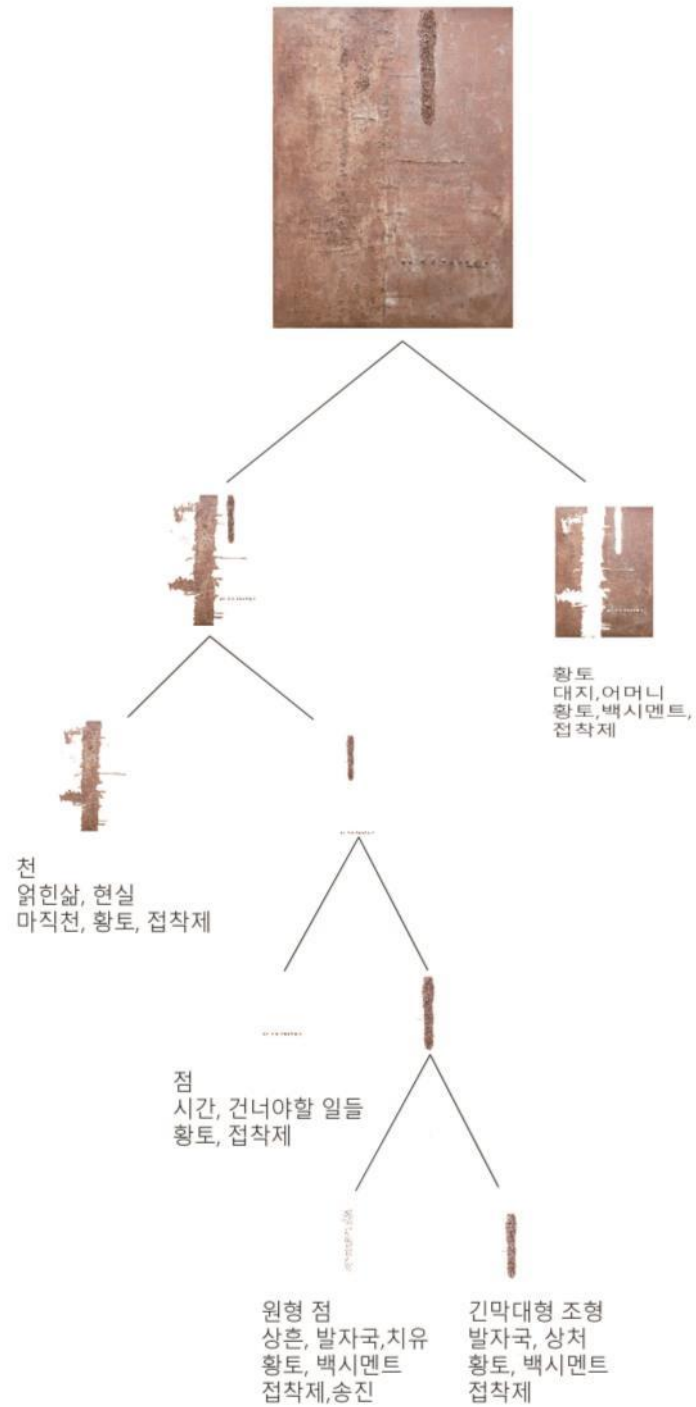
마직 천을 황토 아래에 부착하고 황토를 덮어서 드러나는 감정을 억제시켰다. 영긴 마직 천은 복잡한 현실과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우리의 삶을 연구자 자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긴 시간 천이 낡아서 뜯어지고 색이 바래는 것처럼 투병 생활을 하면서 헤어진 마음과 힘겨워진 몸을 표현한다.

황토 바탕에 몇 군데의 천을 붙여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험난했던 삶을 담았다. 오른쪽 위의 둥근 작은 자국을 찍어놓은 것은 그동안의 내가 걸어왔던 발자국과도 같은 삶의 이야기이다.

군데군데 검정의 색을 찍어서 암울했던 심정과 빨간색 점으로 열정적인 감정 그리고 벽사의 의미를 더해서 병마와 여러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은 염원을 담았다. 봄을 의미하는 파란색으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듯 소망의 마음도 표현하였다.

전체적인 의미는 힘들고 어려웠던 심정들을 어머니와 같은 대지의 기운으로 덮고 치유하며 작은 씨앗을 심어 희망을 기다림을 나타내었다.

4-3-3.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그림 68> 표본작품-3 “465miles-110512” 수형도(樹型圖 Tree Diagram)

4-3-4. 색채분석



<그림 69> 표본작품-3의 색채분석도

전체적으로 어두운 황토색(2.5YR2/4)이 주조를 이루는 다소 무겁고 차분함을 느끼게 한다.

넓게 퍼져있는 짙은 갈색(2.5YR2/4), (2.5YR4/4)가 그 무게감을 더해준다.

V. 결론

본 연구자는 황토를 활용한 미술작품 제작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는 천연재료 중 황토에 대한 질료로서의 사용방법과 표현기법들을 연구하고 작품 제작의 합당한 재료로써 활용 가능성과 건강에 유용한 재료임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황토는 우리 민족의 정서상 대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며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대지의 10%를 차지하는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다. 또한, 집을 짓고 그릇을 만들며 건강을 위한 약재로도 활용 되어 온 것처럼 인류에게는 오래전부터 매우 친숙하고 유용한 자원이었다.

시각적 표현 측면에서의 황토는 다양한 물감이 발명되기 이전 즉, 고대에는 벽화나 채색화에서 황토 칠의 용도로 쓰이기도 하였지만, 현대에는 일반적인 채색재료로 사용하기에는 활용가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

하지만 현대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천연재료가 주는 다양한 효용성이 밝혀지면서 환경과 건강을 위한 활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연구자도 오랜 투병 생활과 건강상의 이유로 화학제품의 물감을 대체한 천연재료인 황토를 활용한 작품 제작을 하고 있다. 작품 제작을 위하여 황토를 재료화 하는 방법과 작품 제작방법, 표현기법들을 실험을 통하여 유용한 결과들을 만들어 내고 꼼꼼히 기록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천연재료인 황토의 사용방법 및 표현기법 등을 반복 실행함으로써 작품 제작에 차별화된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후속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 것이다. 특히 수성 안료나 타 재료와 혼용 및 이종 간의 교반을 통한 새로운 표현 기법 연구는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황토는 본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의 작품 제작에 매우 적합한 재료임을 확인하였다. 나무 합판과 같은 표면에 두껍게 부착하여 질감을 표현하거나 벽화 처럼 음각으로 표현하고, 불(火)을 이용하여 열을 가하는 작업과 굽기, 붙이기, 굽기, 문지르기, 떼어내기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였다. 따라서 연구자의 작업의 밀도를 상승시켜주는 중요한 천연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아울러 연구자의 성장배경과 자기 진술을 통한 의미소들은 작품의 의미분석을 가능하게 하였고 분석의 도구로 사용된 수형도와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은 구조를 분석하고 작품의 의미를 한결 명확하게 나타내주었다.

넷째, 황토를 주재료로 한 작업으로 연구자의 작업환경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화학

재료를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이 없어졌으며 건강도 호전되어 실제로 작업에 임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으로 치유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의학적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커다란 도움이 되었음을 빼놓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즉, 환경은 건강이다. 개인의 건강은 물론 인류 공통의 건강과 직결되어있다. 본 연구자가 황토를 재료로 한 작품 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처럼, 자연 친화적인 재료로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작품 제작의 방법을 제시하고 지구 환경의 회복과 자연으로 회귀의 필요성은 분명히 이 시대의 화두임이 틀림없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믿음사, 1994
- 김순철, 『종이(지)의 이야기』, 도서출판 (주)포장산업, 1992
- 박아림, 『고구려 고분벽화 유라시아 문화를 품다』, 학연문화사, 1988
- 문은배, 『한국의 전통색』, (주)안그라픽스, 2012
- 송재만, 『건강을 살리는 숯』, 문예마당, 2007
- 이광묵, 『황토 흙에 대하여』, 이담, 2010
- 이부영, 『분석심리학 이야기』, 집문당, 2014
- 이승철, 『아름다운 우리 종이 한지』, 현암사, 2012
- 이인구, 『흙집으로 돌아가다』, (주)주택문화사, 2009
- 장마리플로슈, 박인철, 『조형기호학』, 한길사, 1994
- 최영숙, 이주은, 『한눈에 보는 한지』, 한국 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8
- 칼 구스타프 융, 『원형과 무의식(융 기본 저작집 2)』, 솔, 2002
- 한국색채연구소, 『한국표준색표집』, KBS문화사업단, 1991
- 한봉숙, 『반구대 암각화』, 푸른시상사, 2007
- Agustl, Anna , 『TAPIES The Complete Works volume 2: 1961-1968』
- Gremas, AJ, 『 On Meaning Selected Writings in Semiotic Theory』 Theory and History of Literature, Volume 38,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87
- Grotzinger, John, Jordan, Thomas . , Frank Press, Raymond Siever, 『지구의 이해』, (주)시그마프레스, 2009

학위논문

- 김나현, 「색의 상징적 의미와 오방색을 활용한 창의적 표현연구 : 2015 개정교육과정 ‘미술창작’ 과목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 김세원, 「장 튀르사 요셉 그라우-가라가의 작품에 대한 조형기호학적 분석」, 울산대학교 디자인학 석유디자인전공, 1999
- 김양미, 「물성적 표현에 관한 도자조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1993
- 김진주, 「현악기 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활털과 송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09

- 박진아, 「전통한지를 적용한 현대 일상용품 디자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찬희, 「한지의 특성을 이용한 현대장신구의 오브제 표현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2017
- 유상기, 「참숯(사람을 살리는 신비의 숯)」, 논문, 대한한약협회, 1999
- 이승연, 「한지 물성을 이용한 기법 연구」, 새한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9
- 이은주, 「안토니 타피에스 회화에 나타난 물성(物性)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1996
- 조순제, 「흙의 물성표현에 관한 조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도예학과, 2005
- 최상임, 「韓紙와 伝統染色의 版画에의 使用研究」, 국내석사학위논문 弘益大学校 美術大学院, 2002
- 홍지나, 「전통한옥에 나타난 한지의 활용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인터넷 검색

- <https://th.bing.com/th/id/R.992b5bb278a846c4cf559df954823673?rik=DdBq%2bvUgDsPrpA&riu=http%3a%2f%2fcfile30.uf.tistory.com%2fimage%2f9973CC4E5A5F6F2C2B4204&ehk=x2h5is%2fk38vkGPCrEeaPREGyqEUbl8tANZW7jsh1rrA%3d&risl=&pid=ImgRaw&r=0>
- <http://hot.invil.org/index.html?menuno=4218&lnb=20103>
- http://황토온새미로.com/wp-content/uploads/2019/10/s_02_4.png
- https://th.bing.com/th/id/R.7035866d1f94237662e64cfba08c299c?rik=rthpaB2rBr1llg&riu=http%3a%2f%2fcfs4.blog.daum.net%2fupload_control%2fdownload.blog%3ffhandle%3dMEZfZjVAZnM0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NTAuanBnLnRodWli%26filename%3d50.jpg&ehk=xPsBrKN%2bNU%2f3sKD2ngJO81WW987vGS8v7LhzYgfmwEo%3d&risl=&pid=ImgRaw&r=0
-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2D94465C79D1F632>
- <https://t1.daumcdn.net/cfile/blog/9961C24E5C6F876D22>
- https://th.bing.com/th/id/R.1eb4a0601361b32b481d94a83561b0e9?rik=TWJxxulxRPNN8g&riu=http%3a%2f%2fres.heraldm.com%2fcontent%2fimage%2f2019%2f11%2f15%2f20191115000367_0.jpg&ehk=J%2fN2AW41Ka880agt7zpAa%2fPxUs1YYoywgtzQCxBkrw0%3d&risl=&pid=ImgRaw&r=0
- http://www.greenwoodpan.co.kr/data/goods_old/145085577928010.jpg

ABSTRACT

A Study on the Art Works Using Natural Materials

- Based on my works-

Kim, Sung-Dong

Dept. of Textile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Advised by Prof. Kim, Se-Won

In recent days, the environmental crisis becomes worse. As results of the global warming, average global temperature has gradually increased, and ecosystems have been rapidly changed. New diseases newly emerge which we could not even imagine, and fatal viruses mutating and migrating inter-species threaten human beings. While mankind tries to deal with these great changes in nature with unprecedentedly advanced science, it could not solve the great changes fundamentally, but just temporarily slow down the upcoming catastrophe of the globe. The outbreak of COVID-19 threatening to mankind around the world is also considered to be closely related with reckless environmental devastation.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 it is reported that a major cause of the death in 2020 is cancer. It is safe to say that the reckless environment destructions by the human causes not only the cancer, but also COVID-19, and other fatal diseases. Concerns for health of the modern humans yield a major agenda about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make the human being focus on the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s. As a result, the modern humans try to exercise regularly, and be close to nature, healthy foods, and ecological environments to heal themselves.

An author of this dissertation has suffered from a rare cancer for 28 years. As a human and a patient, the author also has great concerns on the health and the environments. From this deliberation, in his artworks, he mainly employs natural loess which has been used by the mankind from ancient times. He considers the loess as the most suitable material for the expression of his artworks. Main intention of his artworks is self-restoring.

In addition, he also implies hope to recover suffering people by natural things which are the main material of his artworks.

In this dissertation, the author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properties of several natural materials, and addresses in-depth considerations of art making processes and expression techniques required when using the natural loess. Two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author's artwork process are making thick matière on the plywood board and mixing rosin with fire. The author claims the special technique additionally applying loess on the artworks is a promising expression technique. Also, the author tries to address the meaning of the natural materials, coexistence and symbiosis of the human being and the nature, and necessity to return to the nature.

To analyze formative factors and semantic configurations of the artworks, a tree diagram is employed, and the Carré sémiotique proposed by A. J. Greimas is used to comprehend the semantic configurations. From the analysis, the author can find that the author's growth process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are important semes for analyzing the semantic and structural properties of his artworks.

By the dissertation, the author can analyze his artworks in an objective viewpoint and propose various expression techniques with natural materials. Additionally, it is confirmed that using natural materials in the artworks can promote one's psychological stability and can be one of resources to heal people.

Finally, by using the natural materials, the author suggests various expression techniques, and can objectively retrospect and analyze his artworks. In addition, the author firmly claims that the natural materials in his artworks give him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stabilities, and finally, make him endure and recovery himself.